

##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In Search of Dream Leadership





##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 발표 일시 | 2007년 11월 13일 호텔신라 서울  
오전 8:00-9:50 **SBS** TV 생중계
- 발 표 자 | **SBS** 보도국 서두원 미래부장, 김상협 미래부 차장
- 특별 연설 | 도미니크 바튼 / 맥킨지 아시아·태평양 회장  
조엘 아버바크 / UCLA 석좌교수, 미국정치연구소장
- 초청 연설 | **제17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제 (민주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초청 연설 내용은 미래한국리포트 홈페이지 참조  
<http://future.sbs.co.kr>

미래한국리포트 연혁		
1차	고령화-저출산 충격, 할로는 없나 맥킨지 & 컴퍼니 공동기획	2004. 9
2차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 베인 & 컴퍼니 공동기획	2005. 1
3차	교육, 동방학습지국의 비전 OECD 공동기획	2005. 9
4차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OECD 공동기획	2005. 2

윤 현 진 / SBS 아나운서

SBS는 지난 2004년부터 네 차례에 걸친 미래한국리포트를 통해 선진 한국을 가로막는 도전이 무엇이며 이를 돌파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국내외 최고의 두뇌 집단과 함께 고민 해왔습니다.

미래한국리포트,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

그 힘은 '꿈'을 향해 역경을 헤쳐나간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 또 한 번 새롭게 일어설 때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진단하고, 대담한 타개책을 모색해온 **SBS** 미래한국리포트.  
2004년 9월 제1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 - 고령화 충격을 본격적으로 이슈화 하면서, 국가 존립의 기본 문제를 직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05년 1월 제2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필두로,  
2010년까지 백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음을 알리고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제3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교육 불만, 교육 엑소더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이 세계의 인재가 몰려드는 '동방학습지국'으로 일대 변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06년 2월 제4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가족해체 현상과 국민 행복지수 추락 배경을 최초로 진단하고,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선진 한국을 향한 35개의 과제를 제안했고,  
상당수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

총체적인 도약의 열쇠는 결국 리더십에 있습니다.

미래 한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 낼 국가적 리더십이야말로  
난제를 풀어나갈 원동력입니다.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12월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오늘 이 자리,  
제5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 '새로운 리더십의 조건'을 묻는 까닭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디지털 혁명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앨 고어 / 전 미국 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 (서울디지털포럼 2005 기조 연설 中)

"한국은 디지털 시대의 위대한 실험실입니다."

에릭 슈미트 / 구글 회장 (서울디지털포럼 2007 특별 연설 中)

다시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국민의 고단한 삶과 아픈 가슴 속으로 들어와,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비전은 국민의 꿈과 만나는 것입니다.

**SBS**도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김 상 협 / **SBS** 보도국 미래부 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국리포트 시간입니다.

저는 보도국 김 상 협입니다.

오늘 주제는 보신 것처럼 리더십입니다.



## 한국의 위상과 국가적 과제, 그리고 리더십

1. 우리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2.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우리는 과연 어떤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국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좌표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해석과 의견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번 제3자의 눈을 통해 우리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 내가 본 한국, 어디에서 어디로 가나?

도미니크 바튼 (Dominic Barton)

맥킨지 아시아·태평양 회장

IMF 금융위기 당시 맥킨지 (Mckinsey & Company) 서울사무소장으로 활약했고, 지금은 중국 상하이에서 아시아를 총괄하고 있는 도미니크 바튼 (Dominique Barton) 회장입니다.





도미니크 바튼 (Dominic Barton) / 맥킨지 아시아·태평양 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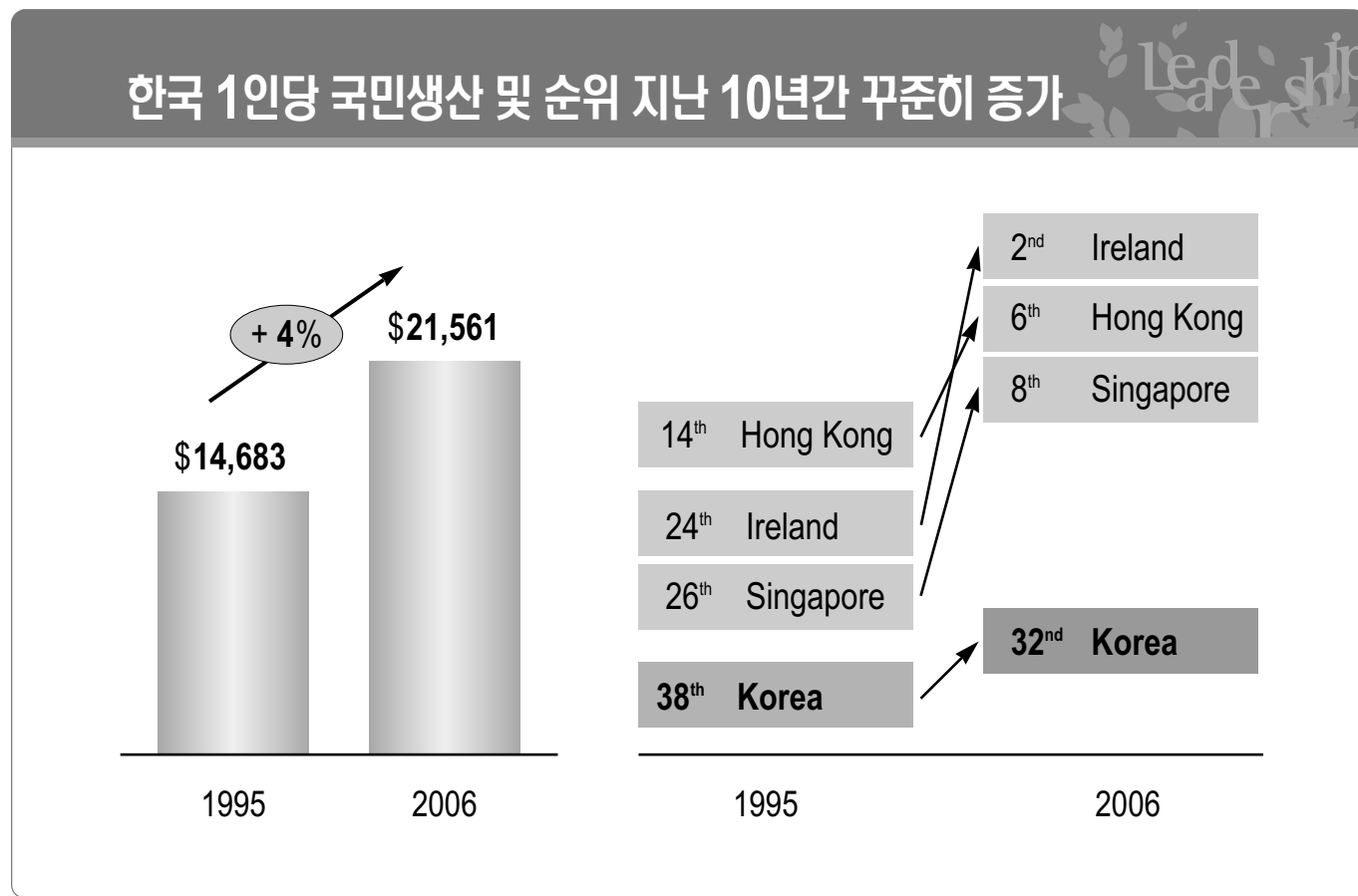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현재 상황,

즉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에서 한국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말씀 드린 후

한국이 앞으로의 5년에서 10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

한국은 10년 전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과는 달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7년 이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4%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나, 이는 10년 전과 비교 해보면 사실상 후퇴하는 속도입니다.

중국과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서 크게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으로의 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아주 부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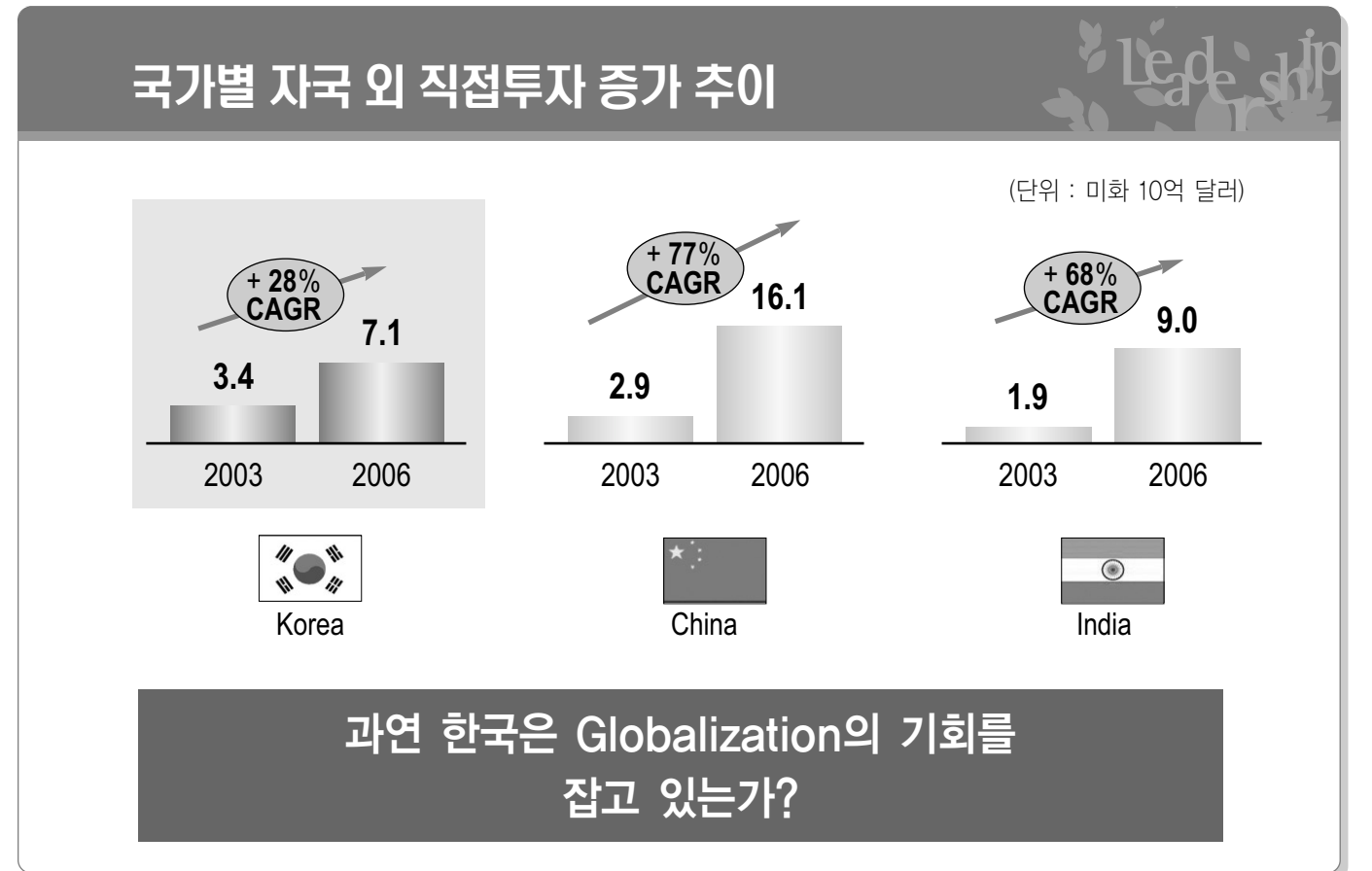
일자리의 70%가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반드시 이 부분에서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은 지금 교육 부문에 있어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며,

이는 앞으로 노인 인구 부양 문제로 한국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이러한 도전 과제가 주어진 동시에 전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한국이 강한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 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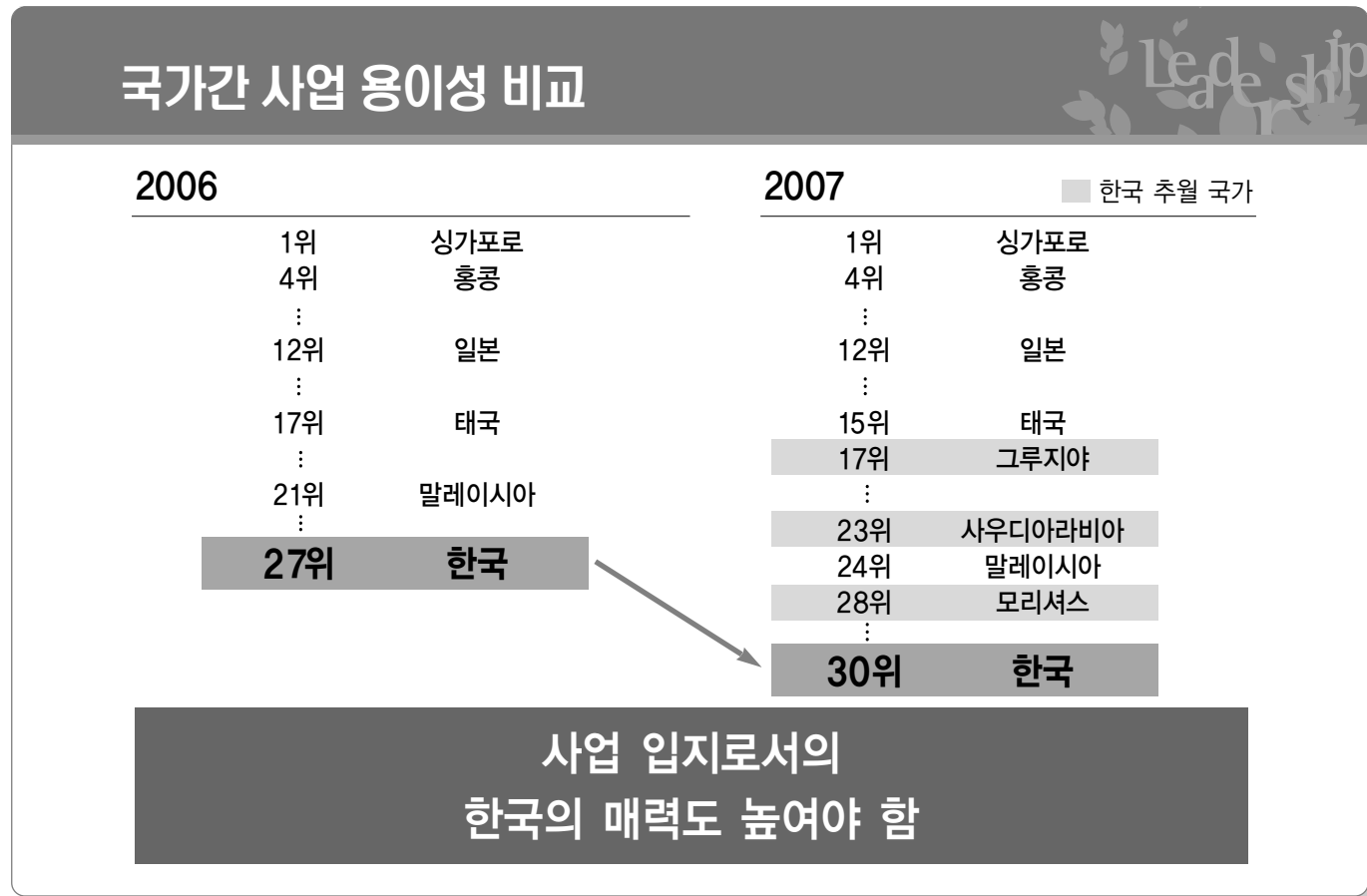
지난 2년 간, 중국 베이징에서 3만 9천 개가 넘는 IT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Petro China' 사의 경우, 얼마 전 세계 최초로 시가 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354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던 기업이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의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한국 역시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금융시장 뿐 아니라 기후 변화나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각국의 협력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술 혁신은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을 살펴보다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그만큼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시장 경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년 이내에 인도와 중국의 8억 명 가량의 인구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새로운 큰 시장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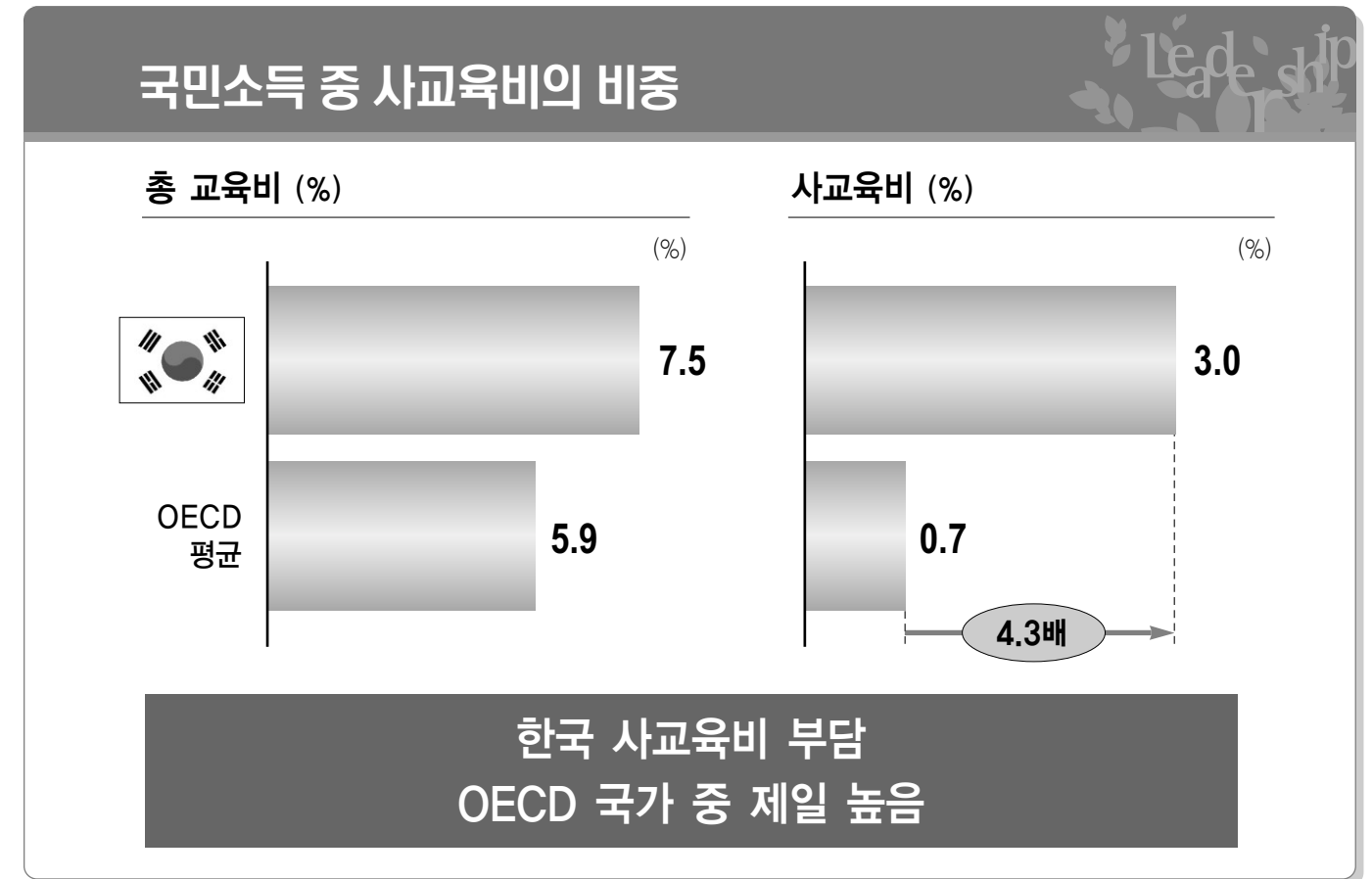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 한국의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합니다.  
 세계 일류 수준에 달하는 기업의 수가 현재의 세 배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한국의 주변 국가들은 모두  
 국가 지도자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총리가 직접 나서 '515 프로그램'을 선창했습니다.  
 2015년까지 세계 5위 기업을 다섯 개 이상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직접 나서서 해외에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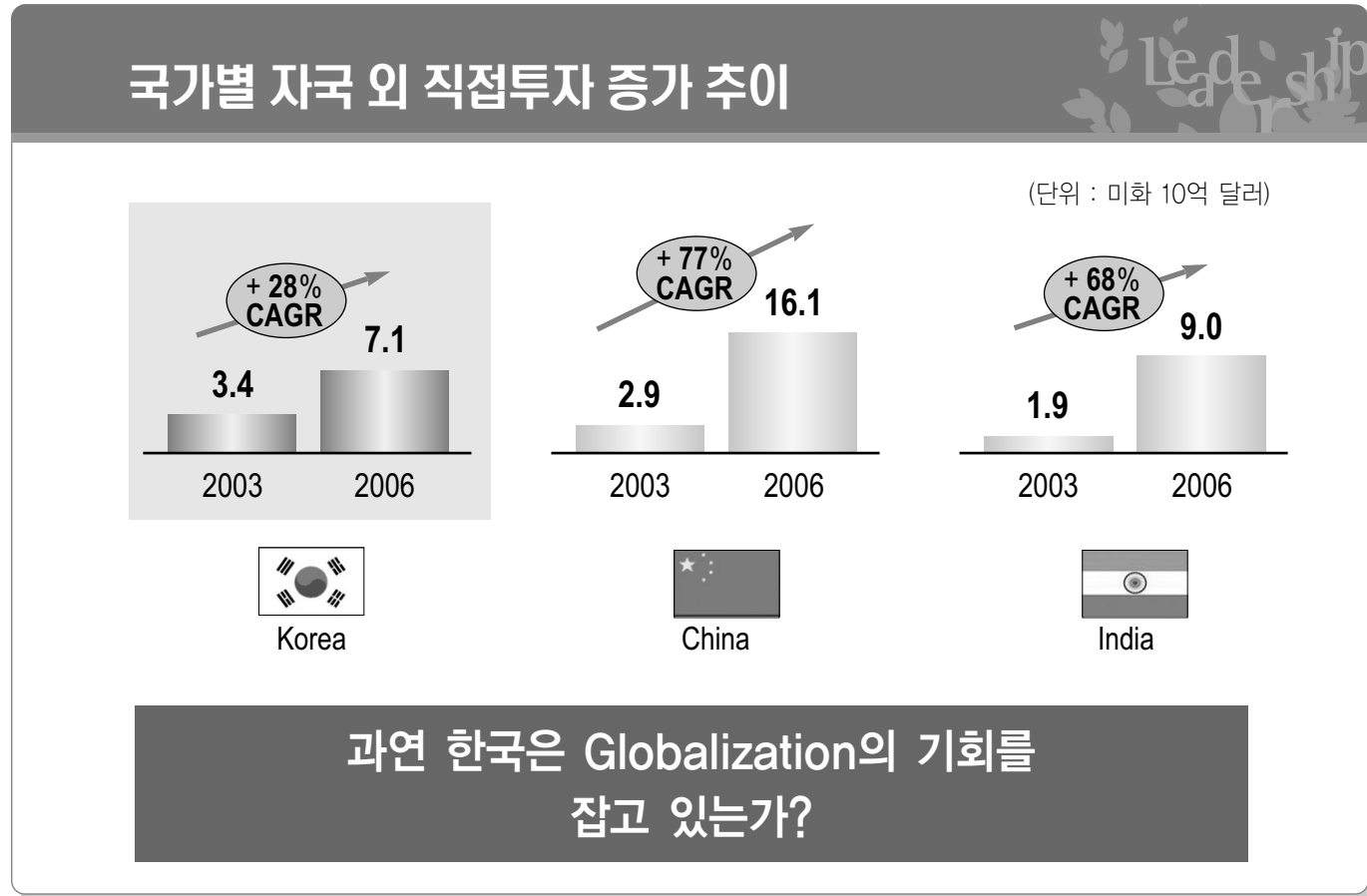
한국은 더 많은 세계적인 논쟁들을 주도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라든지, 에너지 문제들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게만 맡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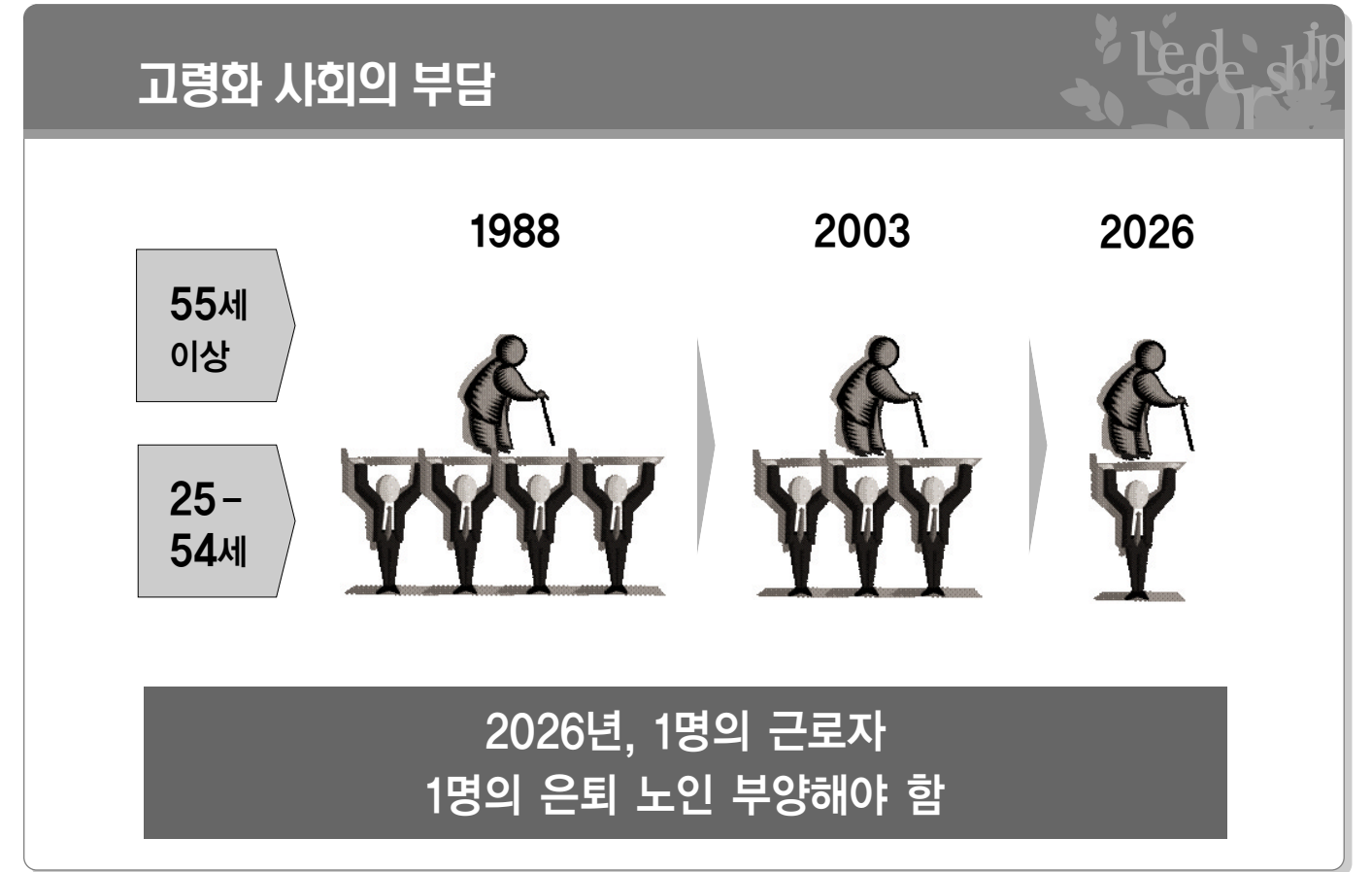


첫 번째로,  
 지난 10년 이상 한국 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교육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 부문의 경우, 한국은 OECD 가입국의 평균보다 4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200위 대학 안에 한국의 대학은 단 2개 뿐이며,  
 일본은 11개, 중국은 6개의 대학들이 그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체계를 개혁하여 재능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국을 세계의 인재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03년에는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 되었습니다. 지금의 차이를 반드시 따라잡아야 할 것입니다.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이나 의료 체계 뿐 아니라, 생산성 부문의 개혁도 이루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의료 체계의 개혁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통해, OECD 회원국의 생산성에 버금가는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한국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앞으로의 5년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세계에서 지도자 반열에 들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은 선진국인가요?

국내 총생산 8,874억 달러, 세계 13위
교역 규모 6,349억 달러, 세계 12위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반도체 수출액 세계 2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잘 들었습니다, 바른 씨.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은 약 8,874억 달러로,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에 달했습니다.

교역 규모는 세계 12위 입니다.

선박 건조량은 세계 1위, 반도체 수출액은 세계 2위,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를 자랑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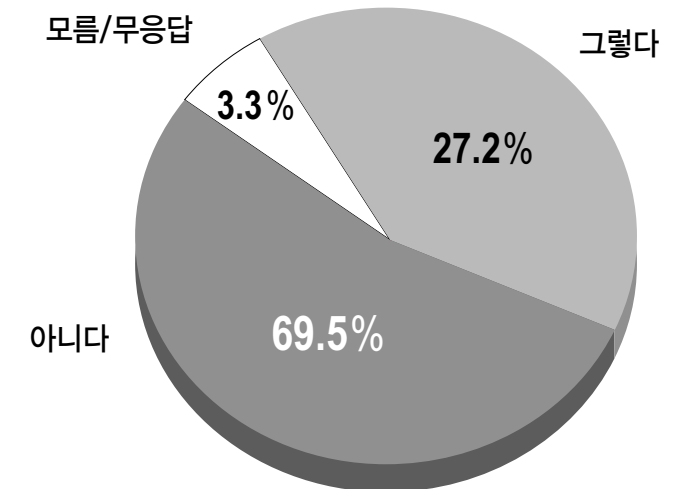
입을 모아 한국의 디지털 혁명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선진국인가요?

1인 당 소득 2만 달러를 넘었으니 IMF 기준으로는 선진국으로 쳐 줄 수 있습니다.

## 아직 갈 길이 멍니다

### 한국 선진국 진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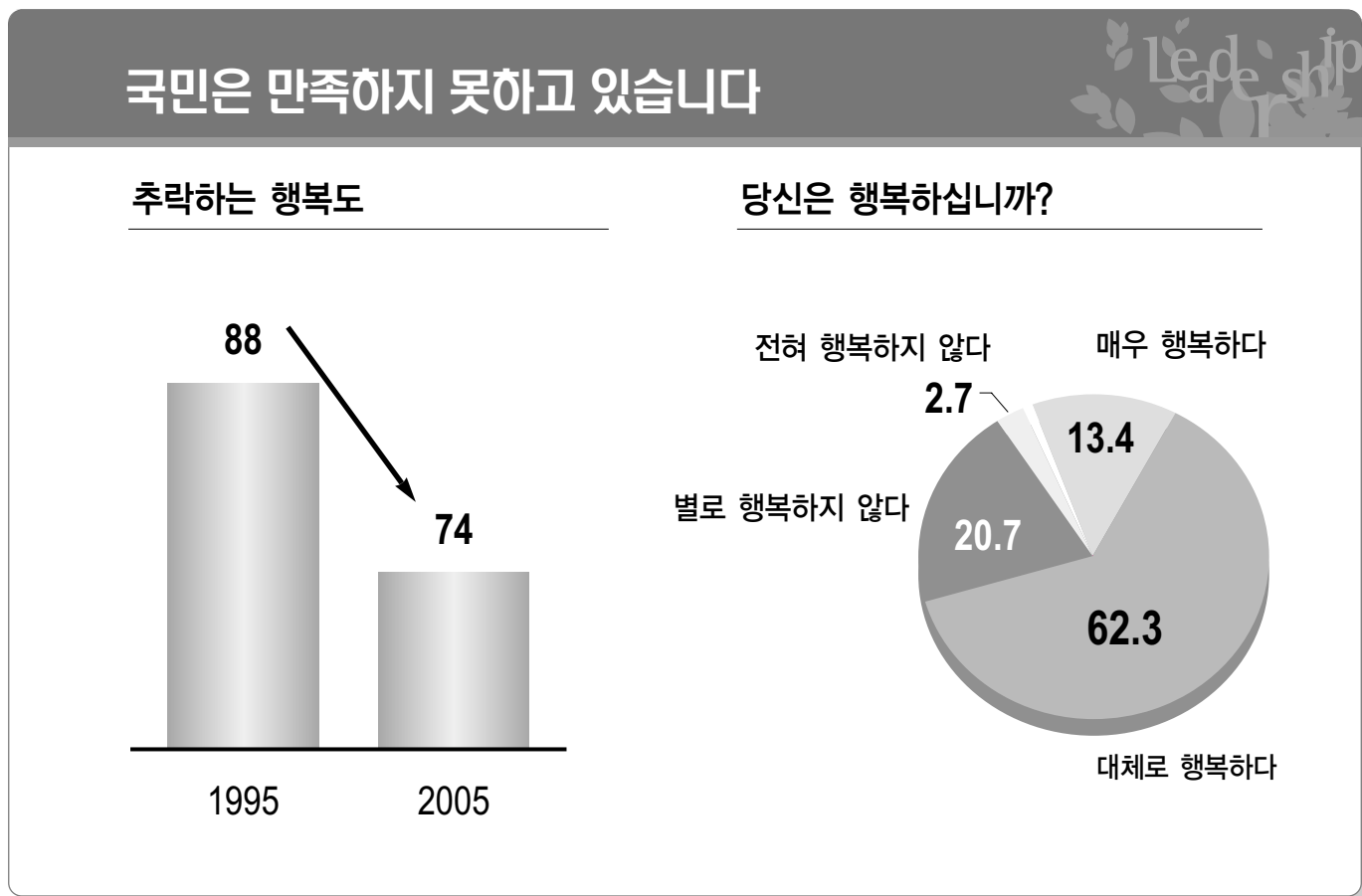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SBS가 TNS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1인 당 국민소득 2만 달러 고지를 넘는다고 해도 세계 40위 권에 불과합니다.

자료 한국 사회와 리더십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SBS - TNS, 2007.10.29 - 31)  
 표본 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표본 오차 : +- 3.1%p (95% 신뢰 수준)  
 \*이후 'SBS - TNS 설문 조사'로 표기



선진국은커녕 오히려 우리 국민의 불만은 커지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지난해 2월 제4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 SBS가 갤럽에 의뢰해 국내 최초로 한국인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 간 한국인의 행복도는 무려 14% 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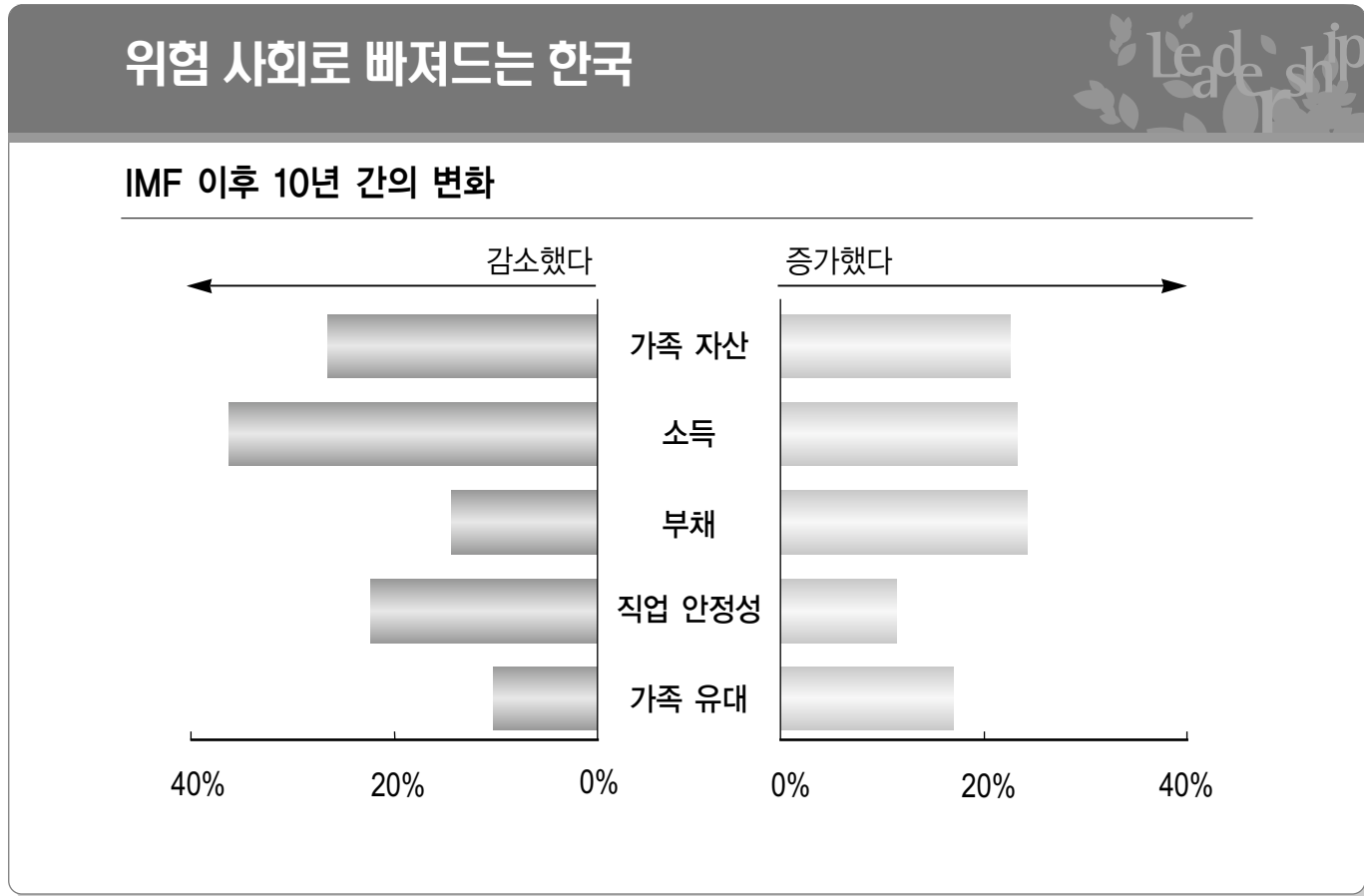
보름 전 다시 조사해본 결과도 비슷해 불행을 호소하는 사람이 20%를 훨씬 웃돕니다. 2005년에서 2007년, 3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37개국 중 하위권인 28위에 그쳤습니다. 이래서는 한국이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고,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료 1 한국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조사 (한국 갤럽, 2005.12.13 - 25)  
 표본 크기 :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 오차 : +- 3.1%p (95% 신뢰 수준)  
 자 료 2 SBS - TNS 설문 조사 (2007)



왜 그런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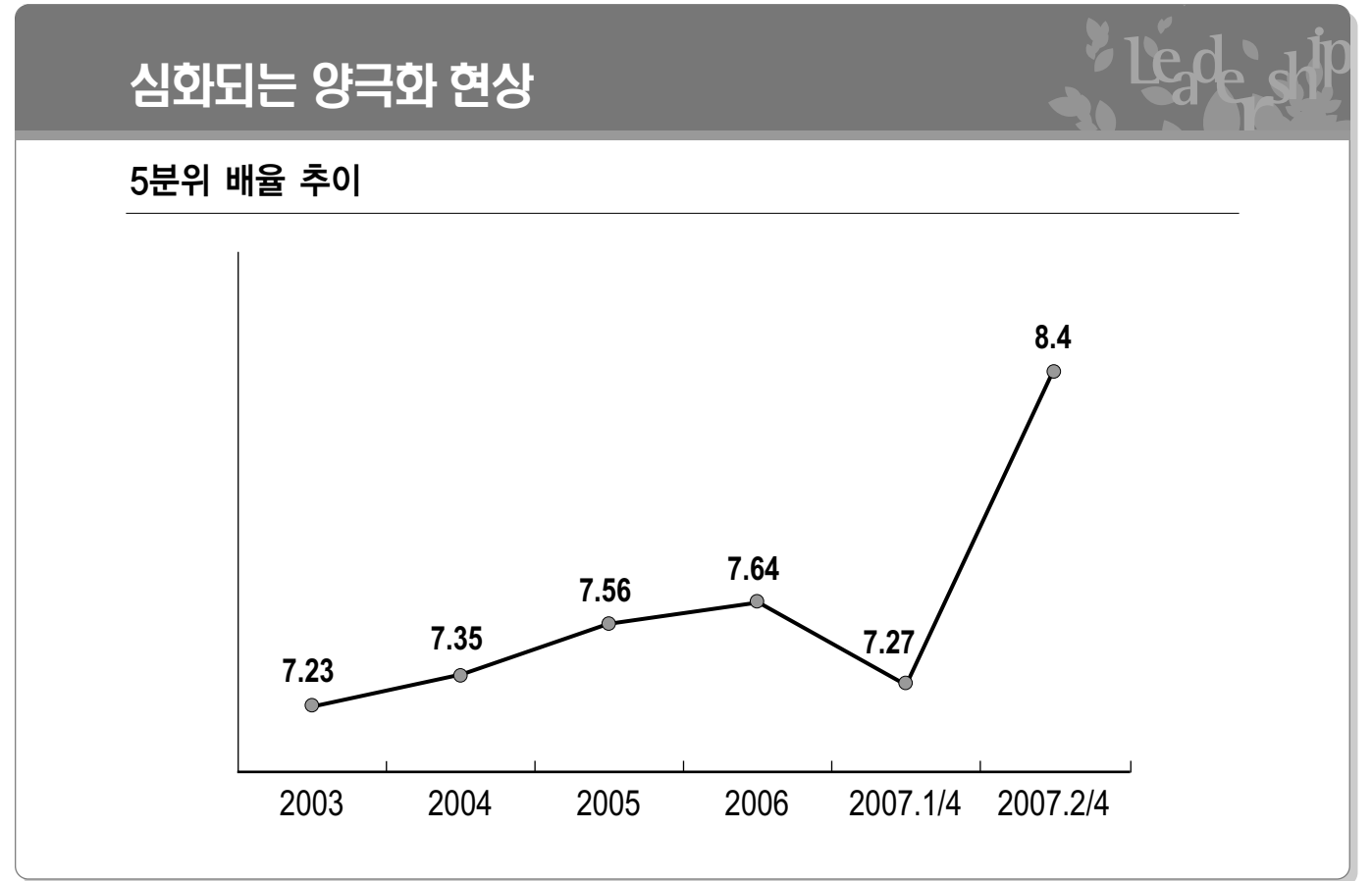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선 후보 여러분 모두 선진 한국을 지향하고 계신데요, SBS는 그 이유를, 선진국을 가로막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적자 때문이라고 봅니다. 먼저 생활의 적자입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IMF 10주년을 맞아 국민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는 지난 10년 간 집안의 재산이 줄었으며, 36%는 소득이 감소했고, 24%는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업 안정성이 줄었다는 응답이 24%, 가족의 유대가 줄었다는 응답이 10%에 달했습니다.

올해 무역은 15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의 실생활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 '위험사회(risk society)'로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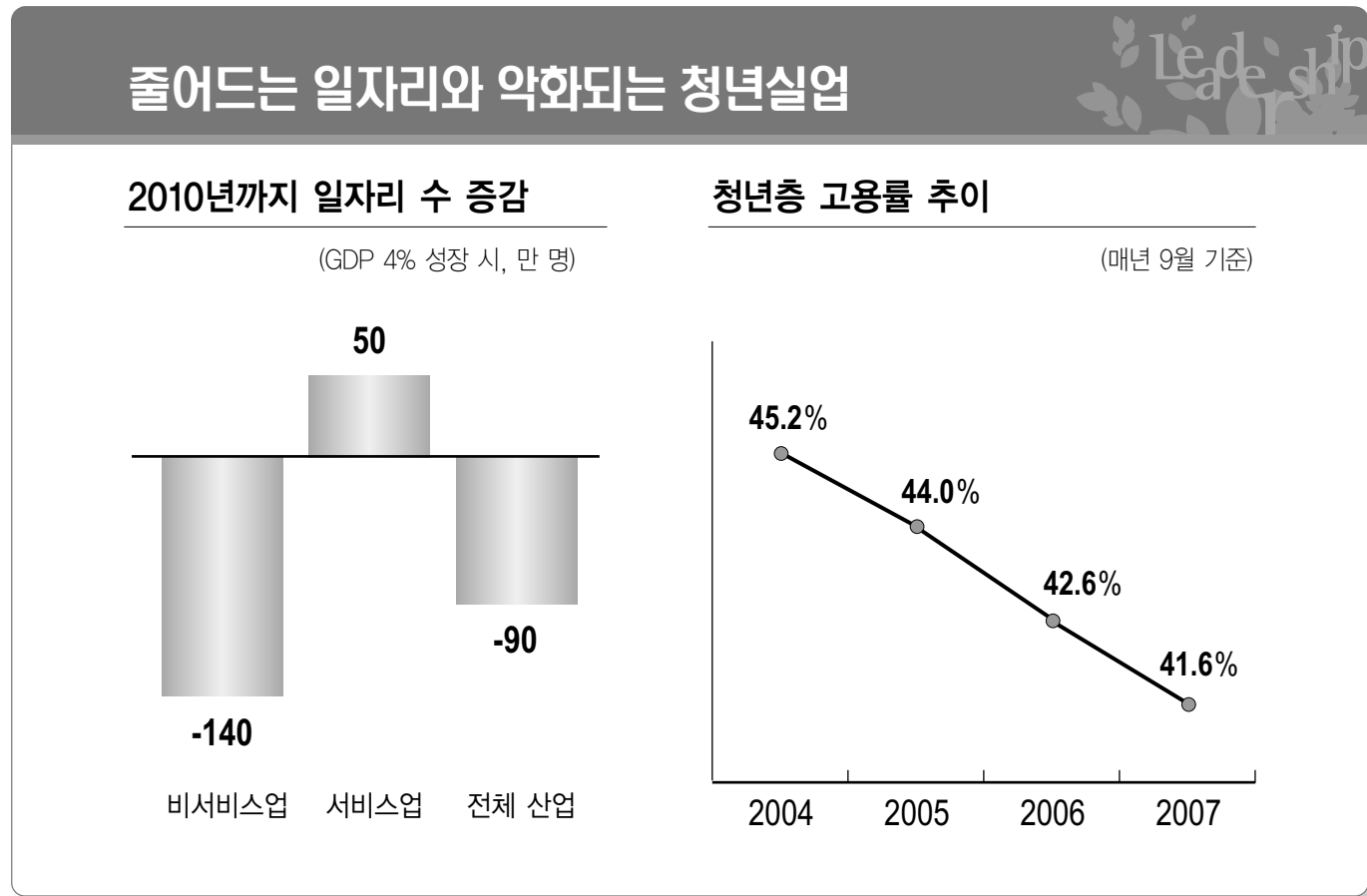
자료 외환위기 10년 국민 의식 조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한국 갤럽, 2007.9.11 - 10.1)  
 표본 크기 : 전국 (제주 제외)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 (유효 표본) / 표본 오차 : +- 3.1%p (95% 신뢰 수준)  
 \*이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한국 갤럽 조사'로 표시



급속한 세계화에 따른 일반적 부작용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 고성장의 엔진이 멈춘 지금 양극화 현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5분 위 배율은, 지난 상반기 사상 최고 치인 8.46을 기록했습니다.

2007년 OECD의 고용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5분 위 배율은 20개 조사 대상 회원국 중 3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가계수지 동향 (통계청,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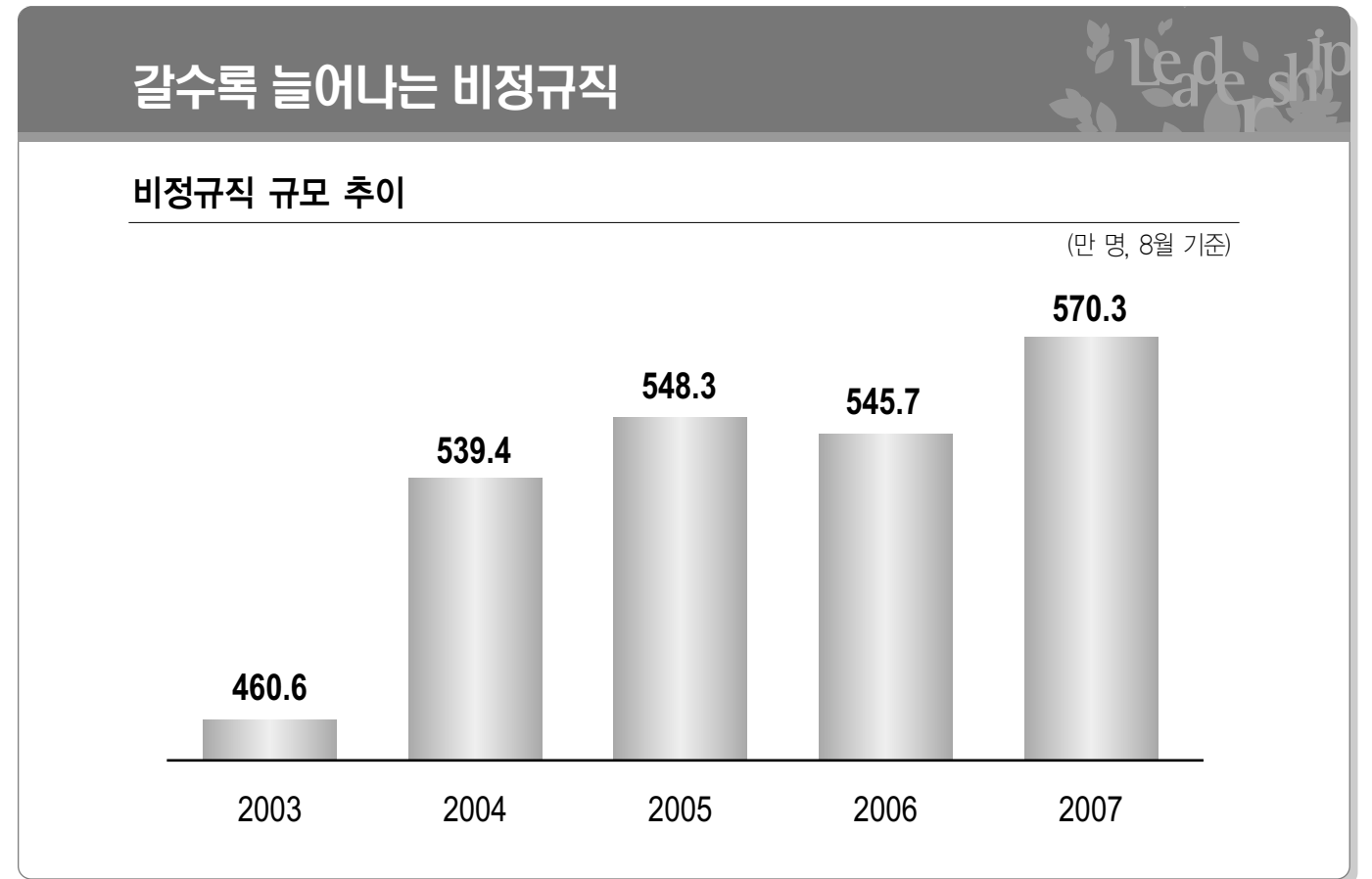


생활의 적자를 불러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5년 1월 제2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 이대로라면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2010년이면 무려 백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는데 요즘 이게 현실이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고용률을 보면 청년층의 경우 지난 3년 간 무려 3.6% 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자료 1 산업 별 취업 계수 증장기 전망 (KDI, 2002) : 베인&컴퍼니 분석  
 자료 2 9월 고용 동향 (통계청,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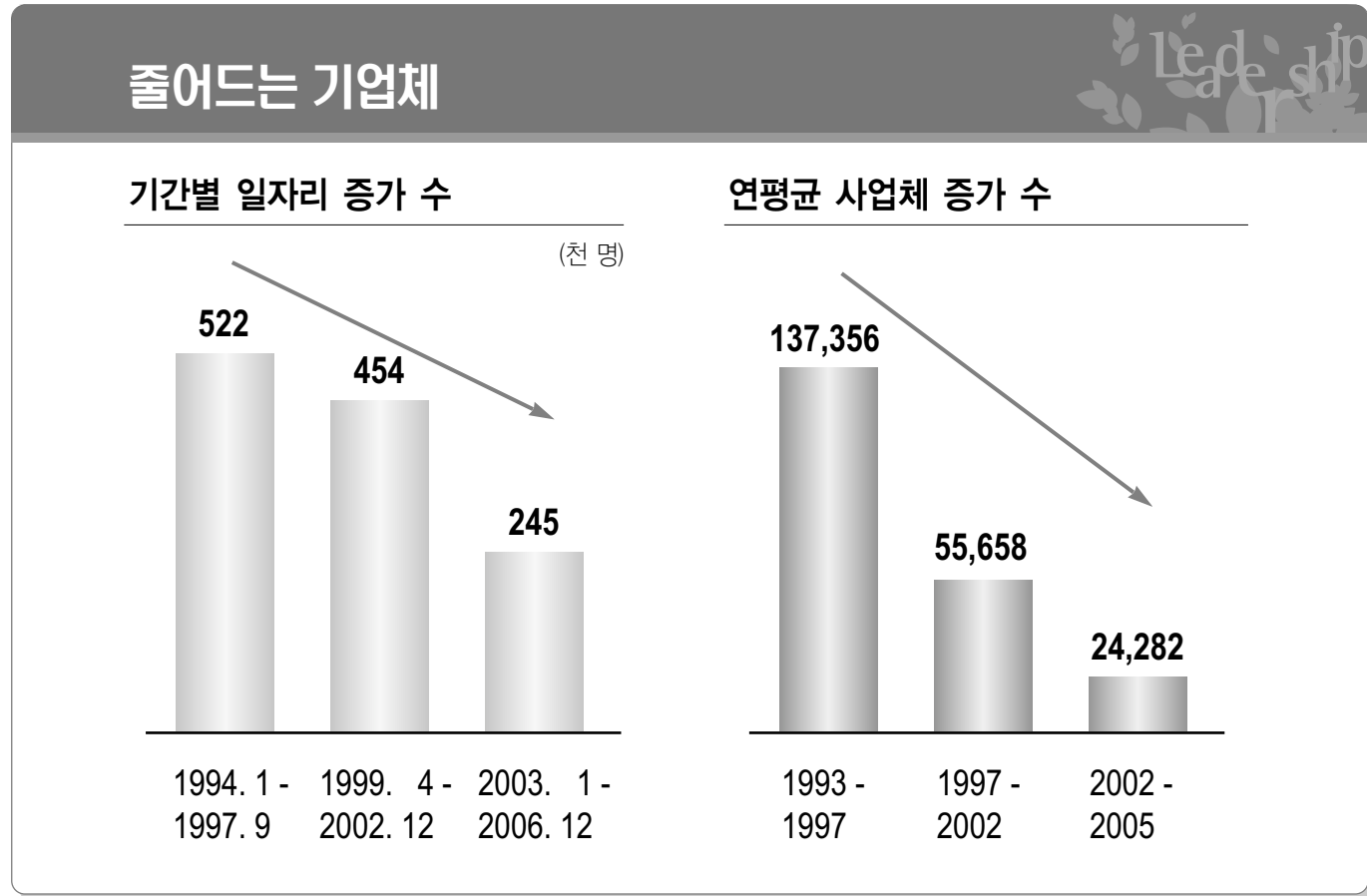


늘어난 일자리가 있다면 '비정규직'입니다.

올 8월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25만 명이 더 늘어나 5백 70만 명에 달합니다.

자료 경제활동 인구 부가 조사 (통계청, 20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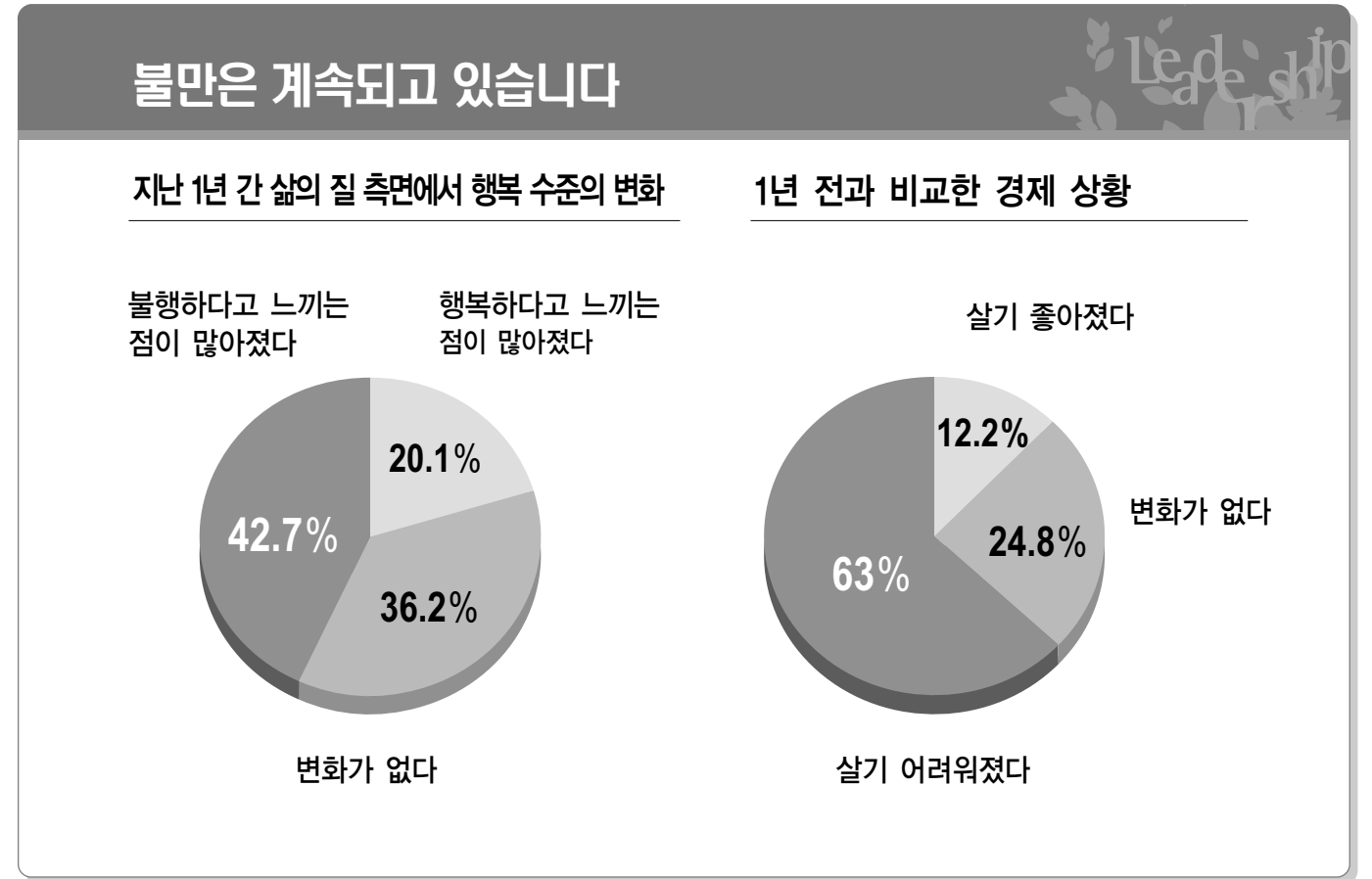




일 자리의 기본이 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입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연평균 13만 7천 개의 사업체가 생겨났지만, 1997년에서 2002년까지는 5만 5천개, 절반 이하로 줄었고 2002년에서 2005년까지는 연평균 2만 4천 개로 더 줄었습니다. 이래서야 일자리가 늘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자 료 1 분기별 고용 통계 (통계청, 각 년도)  
 자 료 2 총 사업체 조사 (통계청, 각 년도)



올 연초 한국 리서치와 다시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은 1년 전보다 살기도 어려워졌고, 삶에 대한 만족도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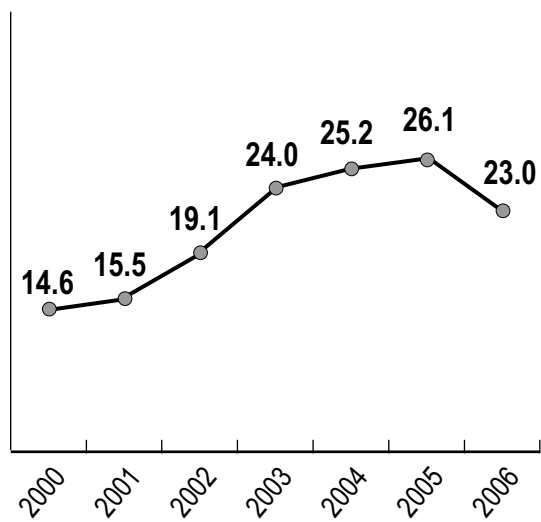
보름 전, TNS와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행을 호소하는 국민이 20%를 훨씬 웃돕니다.

자 료 1 행복에 대한 여론 조사 (SBS - 한국 리서치, 2006.11.10 - 11.11)  
 표본 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자 료 2 SBS - TNS 설문 조사 (20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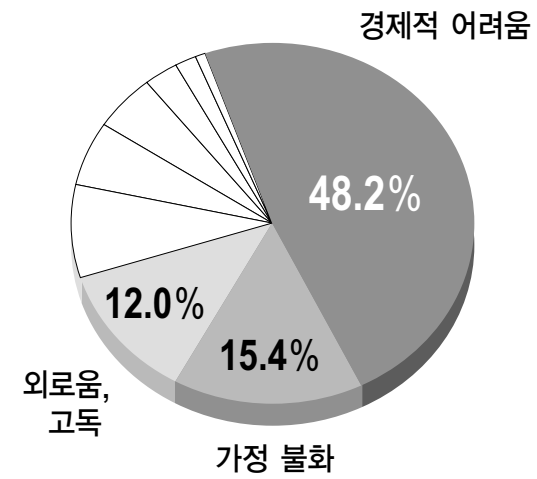
## 늘어나는 자살률, 생계 문제가 가장 큰 원인

연평균 자살률 추이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총동 여부 및 이유



OECD 최고의 자살률.  
그 가장 큰 원인도 경제적 어려움, 생활의 적자에 있었습니다.

## 선진국 가로막는 한국의 5대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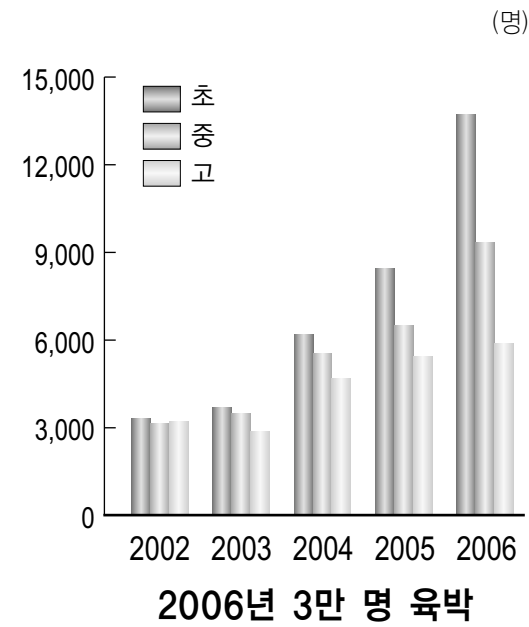


선진국을 가로막는 두 번째 적자는 사람의 적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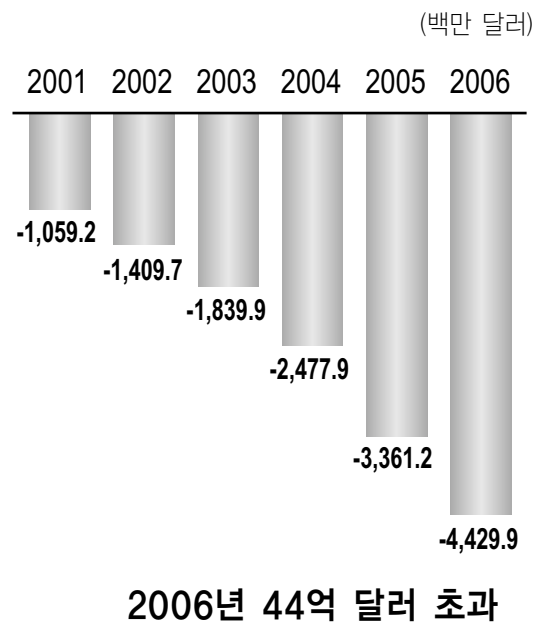
자료 1 사망 원인 통계 결과 (통계청, 각 년도)  
자료 2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한국 갤럽 조사 (2007)

### 교육 엑소더스의 심화

초, 중, 고 유학생 출국 현황



연도별 유학 연수 수치



2005년 9월 3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교육 불만을 못 이겨 한국을 탈출하는 교육 엑소더스 현상을 치유하지 못하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을 떠나는 교육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열 배입니다. 3만 명이 넘는 그 행렬 중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이고, 유학 수치 적자는 4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가족도 가족이지만 수출 역군에게도 너무나 미안한 일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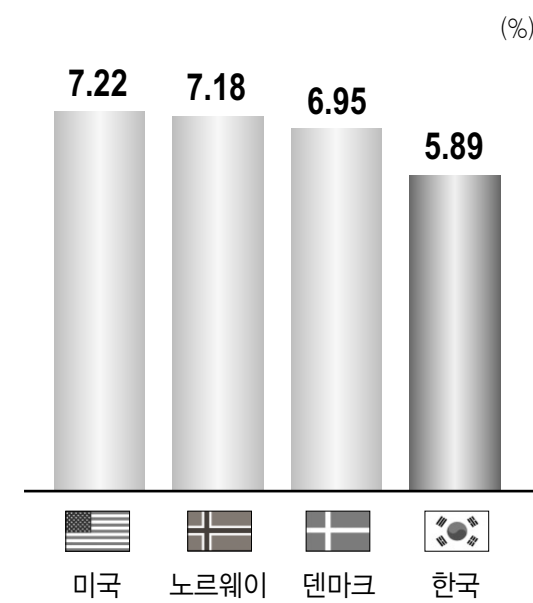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2007)

상세설명 · 출국자는 합법적인 해외 이주나 파견 동행을 제외한 순수 조기 유학만 집계.  
· 귀국자는 출입국 목적을 불문하고, 해외에서 국내 초, 중, 고교로 편입한 학생을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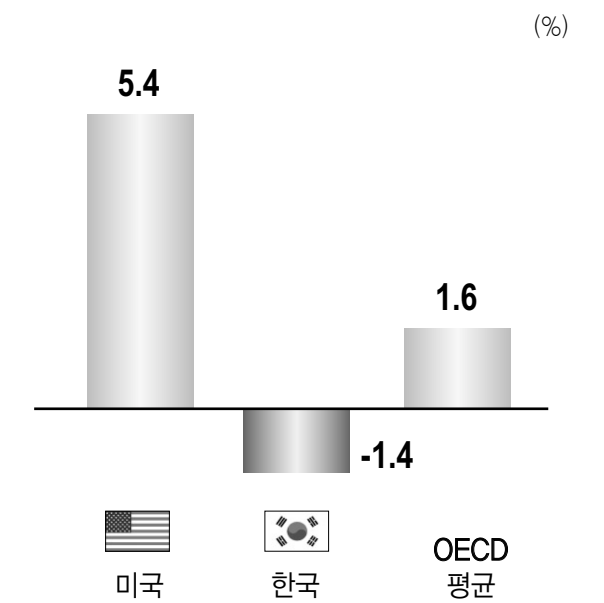
자료 2 한국은행 (2007)

### 심각한 두뇌 유출, 돌아오지 않는 인재

주요국 두뇌 유출 지수



주요국 순 두뇌 유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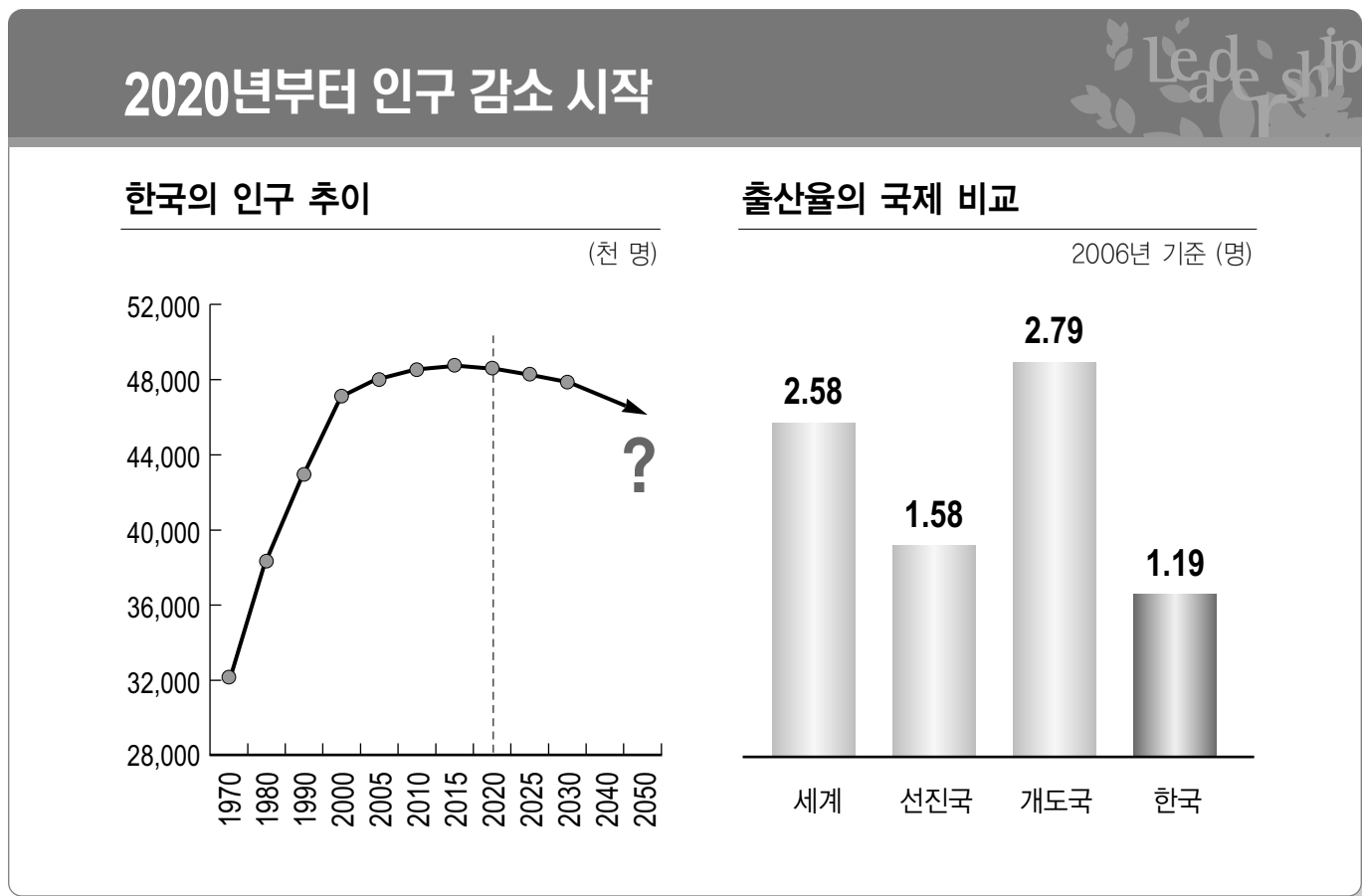


아이들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재들도 한국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 중 귀국하는 사람은 해마다 줄어 지난 해에는 40%에 불과했습니다. IMD 두뇌 유출 지수에서 한국은 10여년 사이에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 세계로부터 고급 두뇌를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 620만 명에서 2000년 1천 35만 명으로 1.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순 두뇌 유입 비중은 한국의 다섯 배. 이게 바로 미국과 한국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상세설명 · 두뇌 유출 : 국가의 유효한 고급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여기에서는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는 정도가 낮을수록 순위가 높음.  
· 두뇌 유입 비중 : 국내 거주 외국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 수에서, 해외 거주 국내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 수를 제외한 값을 25-65세의 국내 노동인구로 나눈 값.

자료 1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 2007)

자료 2 Frederic Docquier & Abdeslam Marfouk, 'International Migration by Educational Attainment(1990-2000)-Release 1.1,' (World Bank, 20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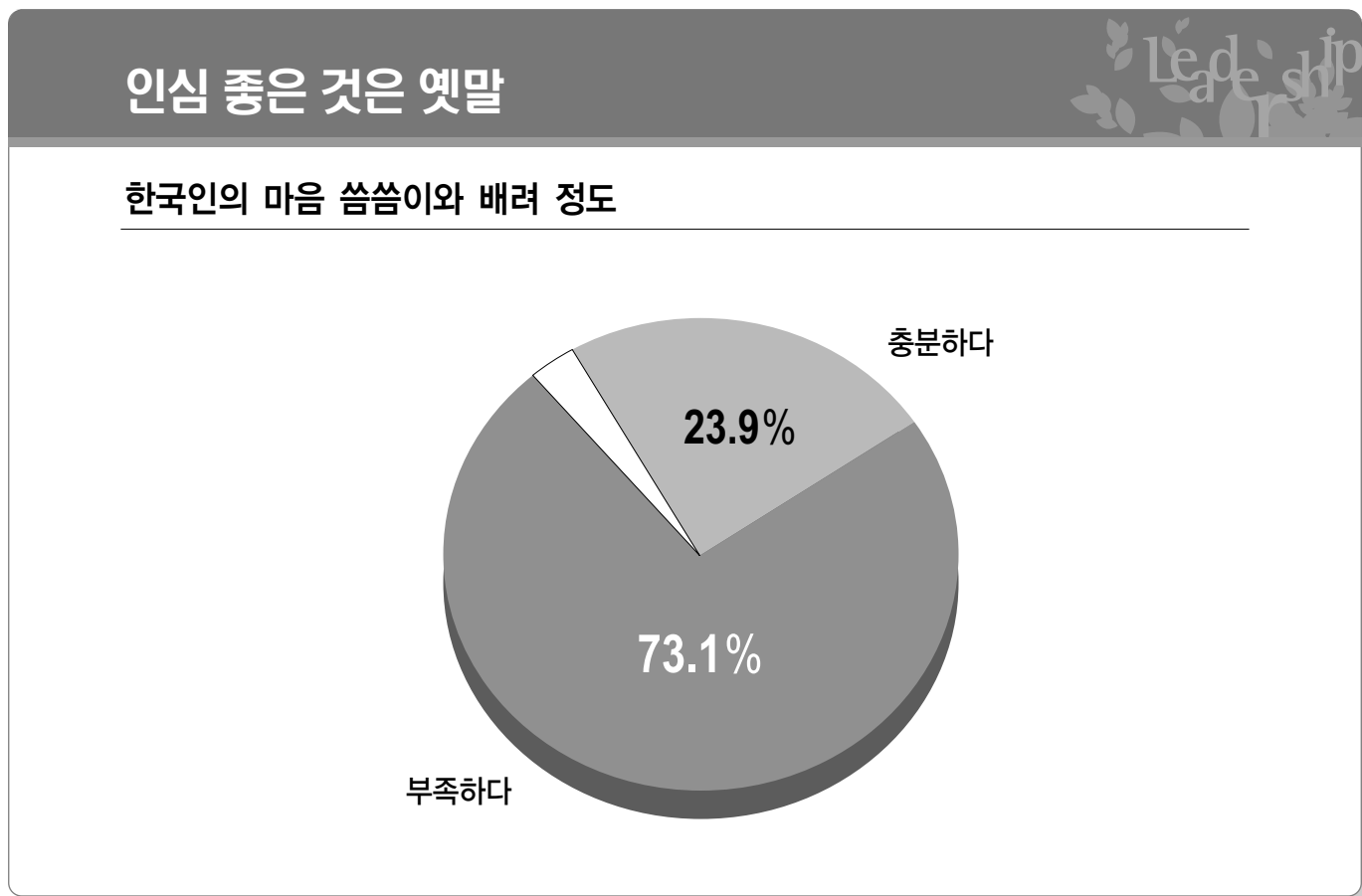
게다가 말 그대로, 오는 2020년이면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 고령화 충격 때문입니다.

아직 선진국에 들어서기도 전에, 생산 인력이 줄고 부양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개인이나 국가나 그 부담, 감당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료 1 OECD  
 자료 2 OECD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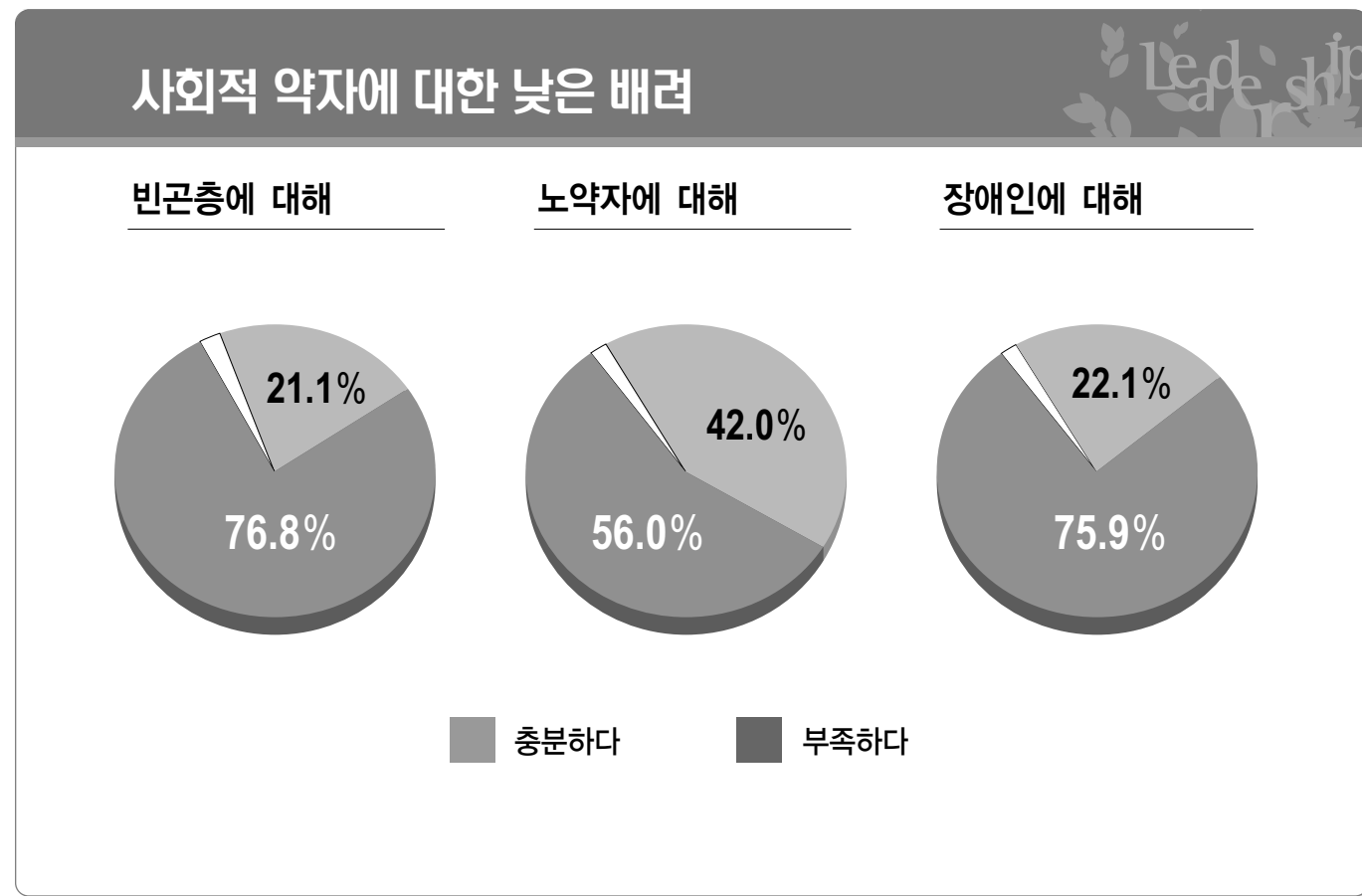


세 번째는 마음의 적자입니다.



한국 하면 동방예의지국, 인심 좋은 나라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은 우리의 마음 씀씀이와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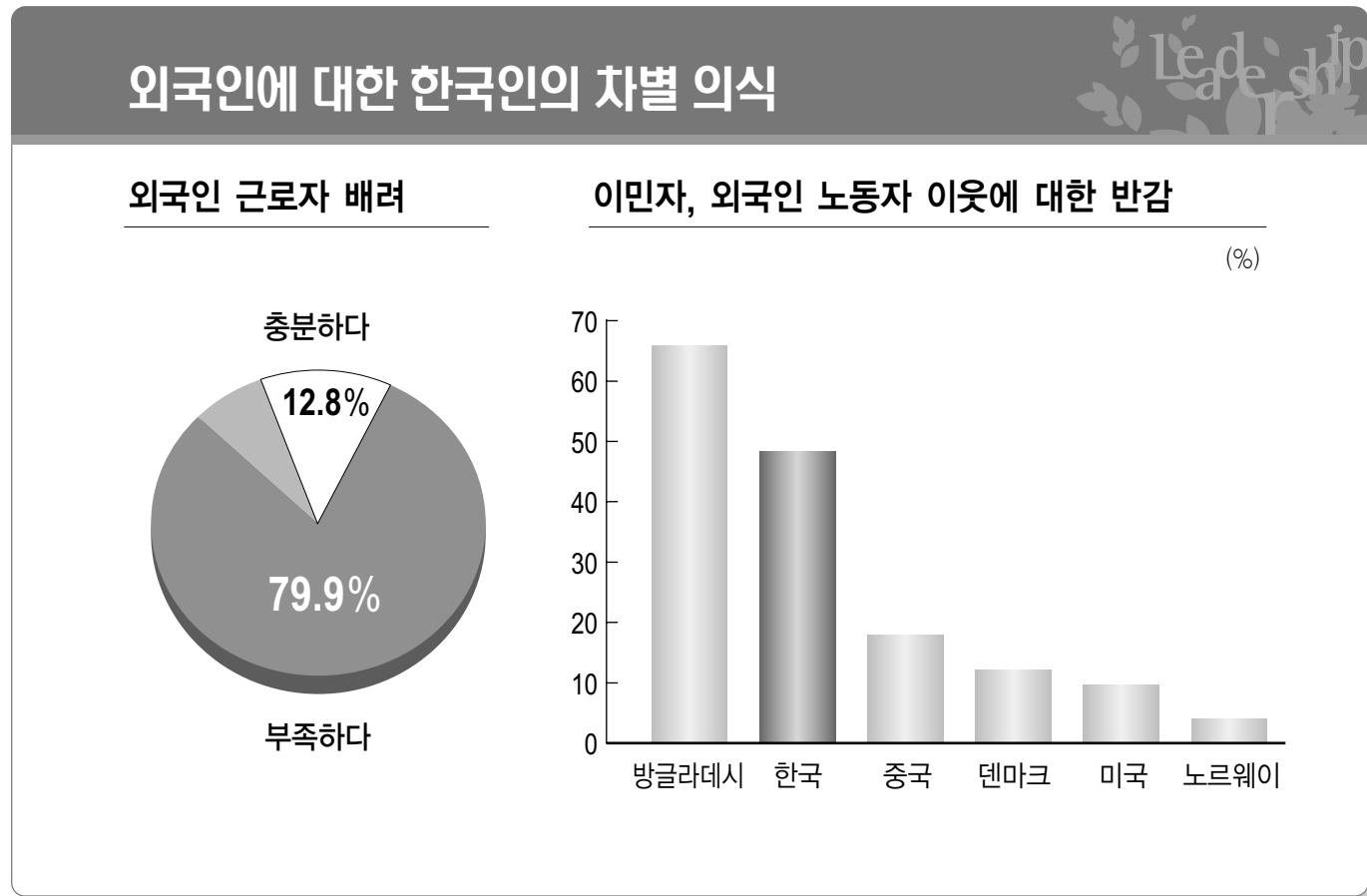
자료 SBS - TNS 설문 조사 (2007)



빈곤층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대단히 낮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SBS - TNS 설문 조사 (2007.10)





외국인 백만 명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국민 80%는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반감이 세계 2위라는 명예롭지 못한 조사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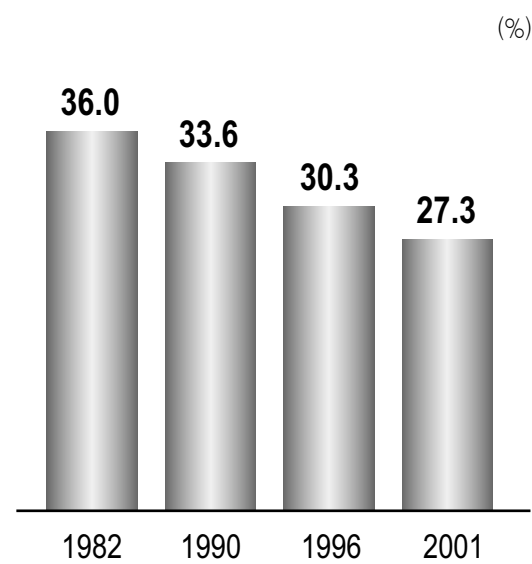


마음이 각박해져서 일까요?  
신뢰에도 금이 간 듯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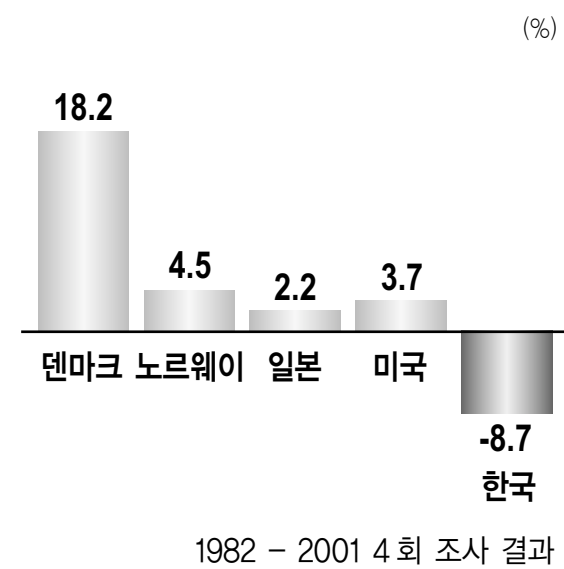
자료 1 SBS - TNS 설문 조사 (2007)  
자료 2 World Value Survey (2000)

## 사회 신뢰의 추락

한국의 사회 신뢰도 변화 (%)



주요국 사회 신뢰의 변화 (%)



1982년부터 2001년까지 20년 간 네 차례에 걸친 세계 가치관 조사 결과,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이나 일본은 올라갔고, 노르웨이는 4.5%, 덴마크 같은 나라는 무려 18% 이상 올라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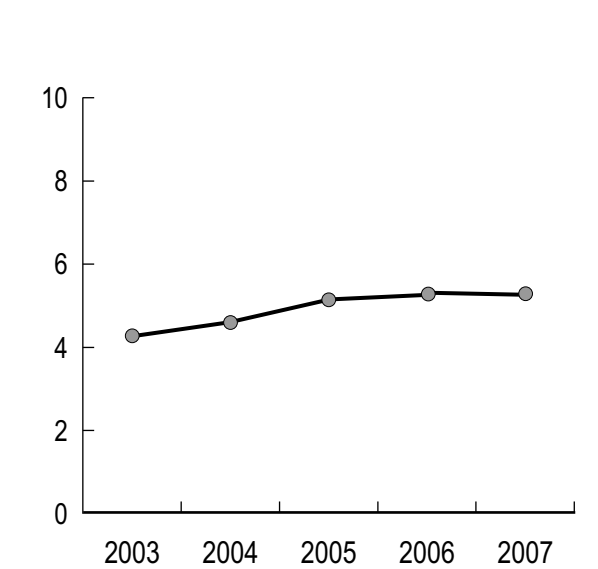
자료 1 World Value Survey (1982 - 2001)  
 자료 2 World Value Survey (1982 - 2001) : KDI 분석 (2007.9)

## 한국의 투명성 OECD 최하위권

주요국 부패인식 지수

세계 순위	OECD 내 순위	국가	CPI
1	1	핀란드 덴마크	9.4
9	8	노르웨이	8.7
17	15	일본	7.5
20	18	미국	7.2
43	25	한국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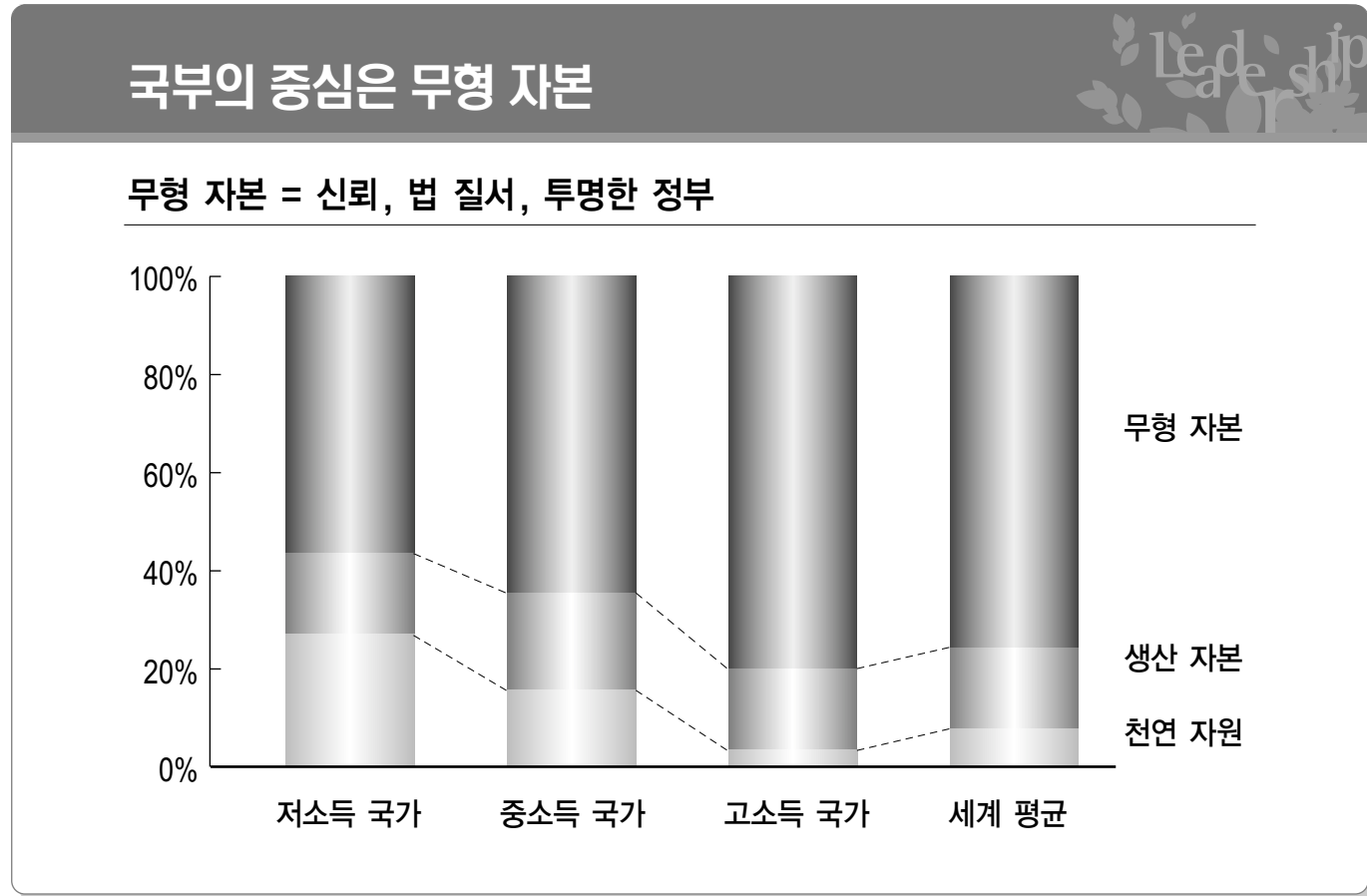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 추이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조사한 부패인식 지수를 봐도 한국은 OECD 30개국 중 2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 여기서도 1위를 차지합니다.

상세설명 ·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부패인식 지수  
 · 10점 만점, 180개국 대상 조사, 12개의 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14개의 설문 조사에 근거

자료 1 한국 투명성 기구 (2007)  
 자료 2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7)



그렇다면 신뢰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세계은행이 펴낸 <세계의 국부>라는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의 국부는 3%가 천연 자원, 17%가 기계나 설비, 사회 간접자본과 같은 생산 자본으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80%는 신뢰, 법과 질서, 투명한 정부와 같은 무형 자본이 만든다고 합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나 돈보다 훨씬 값진 사회적 자본입니다.

덴마크 같은 나라가 1인 당 소득이나 행복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동시에, 신뢰도와 투명도 역시 세계 최고라는 것이 이런 분석을 웅변합니다.

한국이 저 성장의 늪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신뢰의 적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자료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 (World Bank,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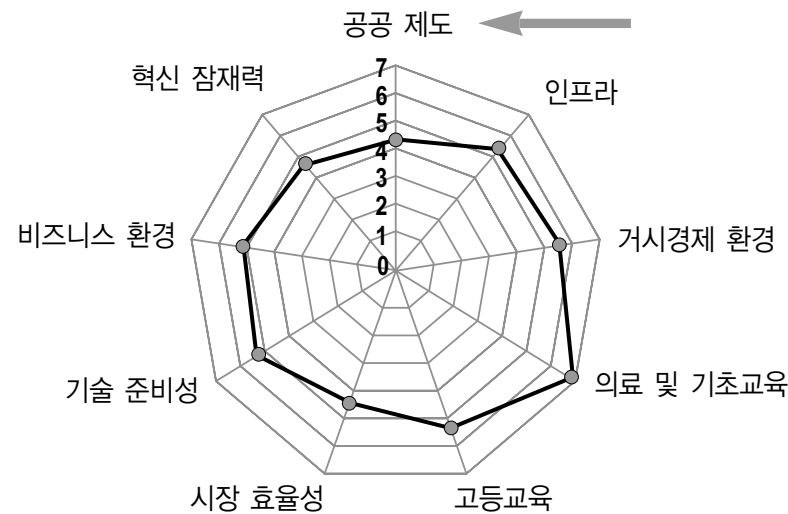


신뢰의 적자는 리더십의 적자와 직결됩니다.

###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	국가	작년 순위
1	미국	6
2	스위스	1
3	덴마크	4
5	독일	8
7	싱가포르	5
8	일본	7
9	영국	10
10	네덜란드	9
<b>11</b>	<b>한국</b>	<b>24</b>
16	노르웨이	12
28	태국	35
34	중국	54
48	인도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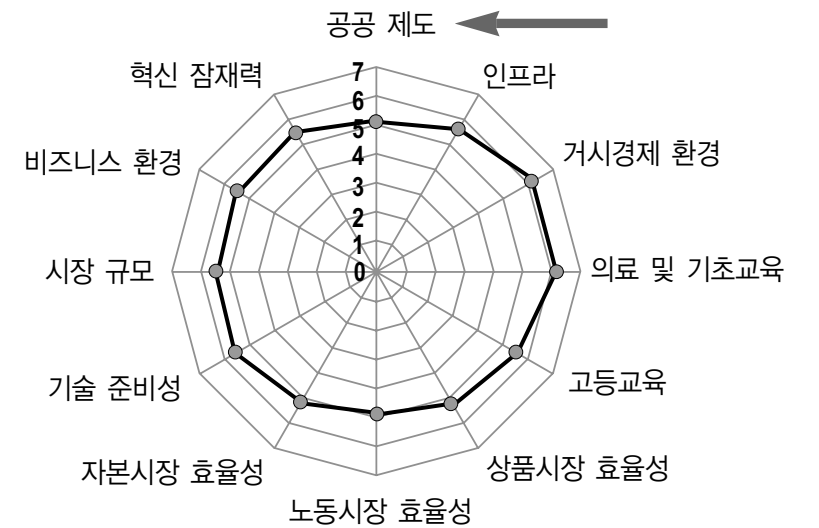
2007 분야별 국가 경쟁력 척도



###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	국가	작년 순위
1	미국	6
2	스위스	1
3	덴마크	4
5	독일	8
7	싱가포르	5
8	일본	7
9	영국	10
10	네덜란드	9
<b>11</b>	<b>한국</b>	<b>24</b>
16	노르웨이	12
28	태국	35
34	중국	54
48	인도	43

2008 분야별 국가 경쟁력 척도



얼마 전 발표된 2008 세계경제포럼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24위보다 크게 상승해 11위로 올랐습니다. 미래의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세계경제포럼 측은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듯, 다른 분야에 비해 공공 제도 분야(Public Institute)는 여전히 납작하게 눌러 있습니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이 부분이 우리의 경쟁력 요소 중 가장 뒤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료 The Global Competitiveness Yearbook (World Economic Forum, 2006 - 2007) - 세부사항 별첨

자료 The Global Competitiveness Yearbook (World Economic Forum, 2007 - 2008) - 세부사항 별첨

## 2008 정부 기능에 대한 평가

정책 결정의 중립성	15위
입법 체계의 효율성	28위
정부 지출의 적합성	22위
정책 결정의 투명성	34위
사법부의 독립	35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22위

정치 경쟁력  
세계 26위?

세부적으로 보면

입법 체계의 효율성 28위, 정부 예산 지출의 적합성 22위, 정책 결정의 투명성 34위 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22위로 나옵니다. 작년에는 60위 권 밖이었습니다.

이를 산술 평균 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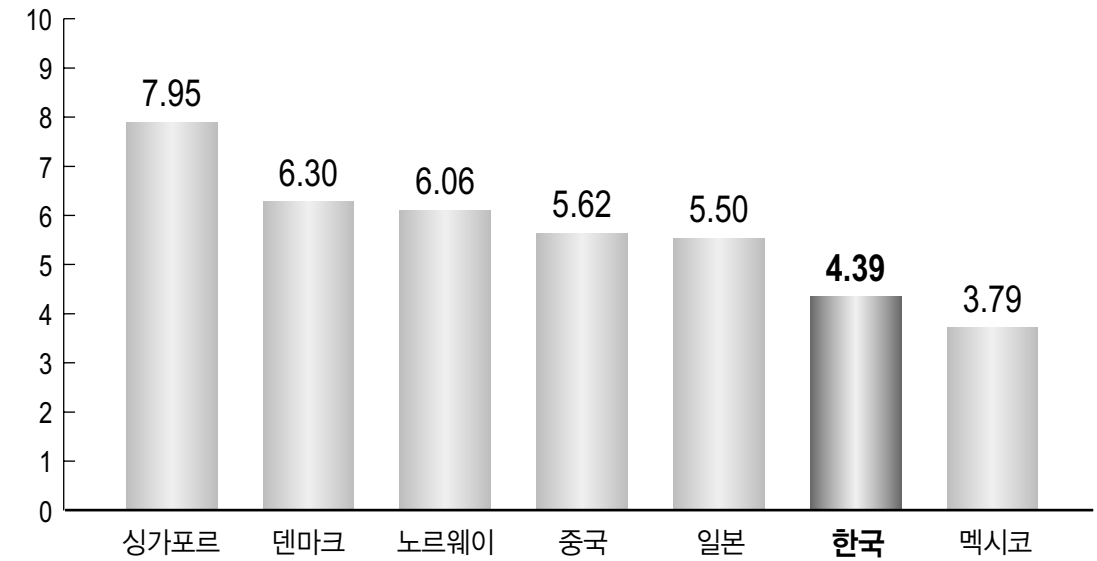
한국의 정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보다 절반 이하인 세계 26위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국가 경쟁력,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자 료 The Global Competitiveness Yearbook (World Economic Forum, 2007 - 2008)

## 세계 각국의 정치 경쟁력

IMD 국가 경쟁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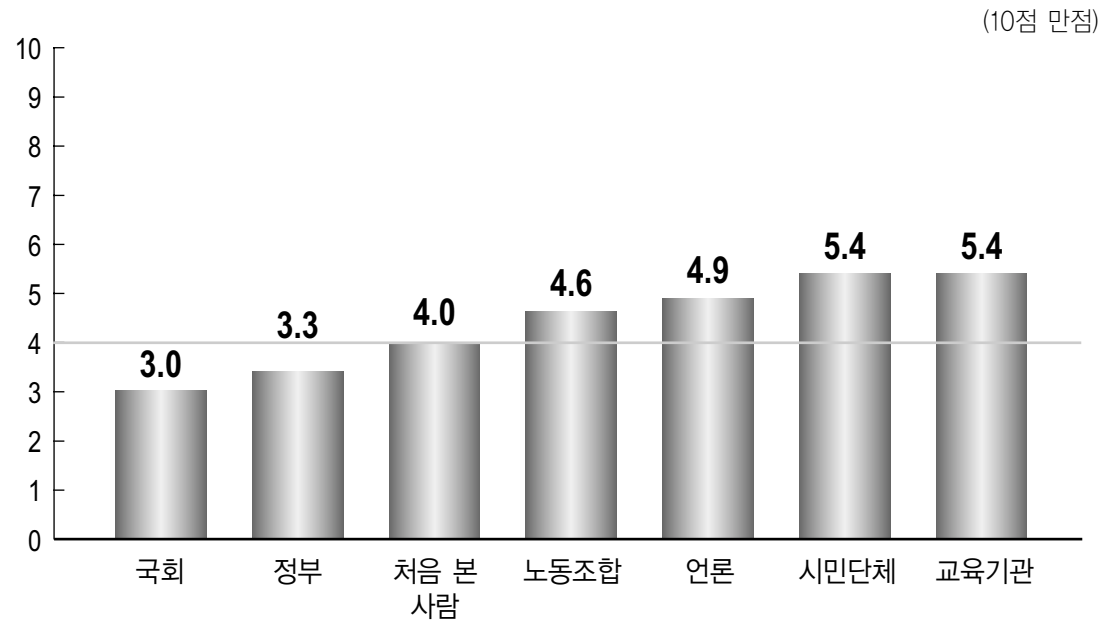
IMD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조사에서도 한국의 정치 경쟁력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하위에 속하는 나라들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료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 2007)  
- 세부사항 별첨



## 영향력 높을수록 불신의 대상

### 공적기관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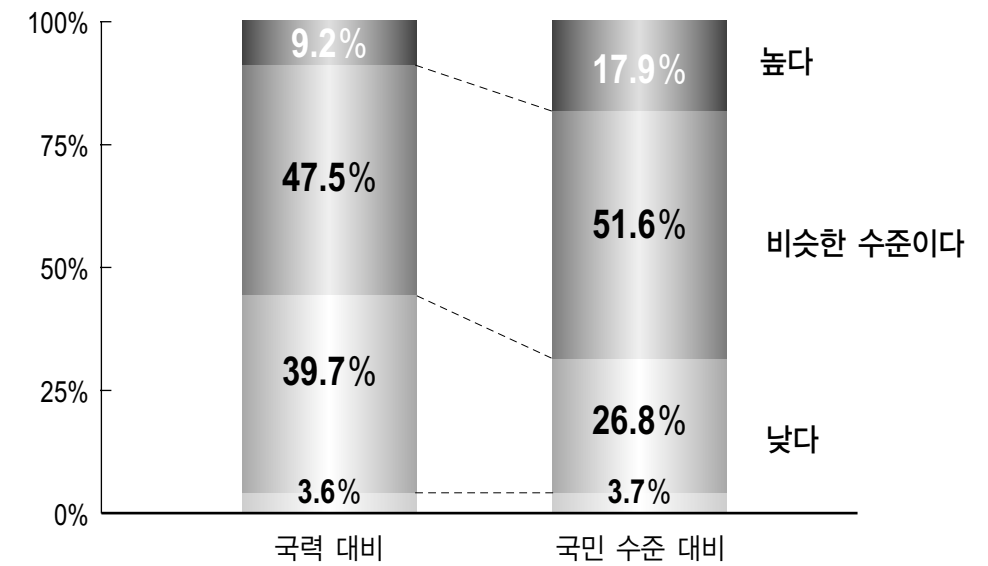


사실 국내 조사를 보면 더 참담합니다.  
국회와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그 어떤 집단보다도 높게 나옵니다.  
영향력이 높은 곳일 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곳이 한국입니다.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대통령에 대한 저조한 신뢰도

### 국력, 국민 수준 대비 대통령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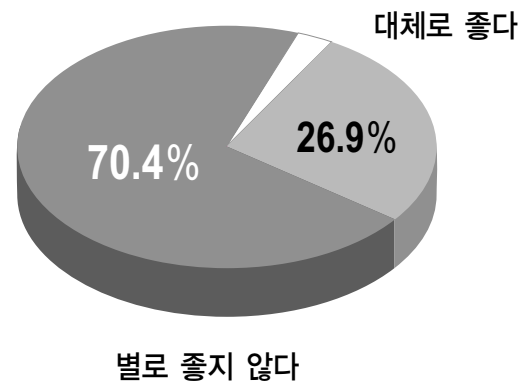


역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력의 수준보다 높다는 응답은 9.2%, 반면 낮다는 응답은 40%에 달합니다.  
국민 수준보다 아래라는 응답도 27%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국민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통념에 비추어 보면,  
리더십 적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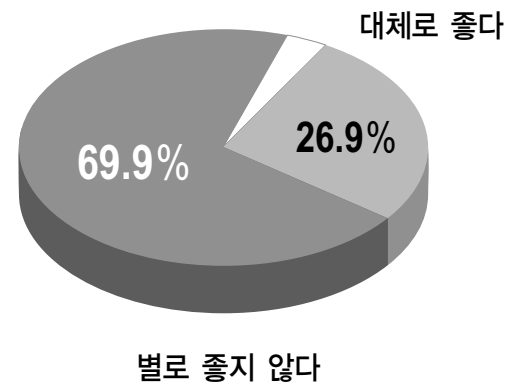
자료 SBS - TNS 설문 조사 (2007.10)

## 국민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국민의 대통령 선출 능력



### 대통령이 소신과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정도



여기에는 국민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70%는 대통령 선출 능력도 부족하고, 대통령이 소신과 능력에 따라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도 못한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리더십뿐 아니라 팔로워십(followership)도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 SBS - TNS 설문 조사 (20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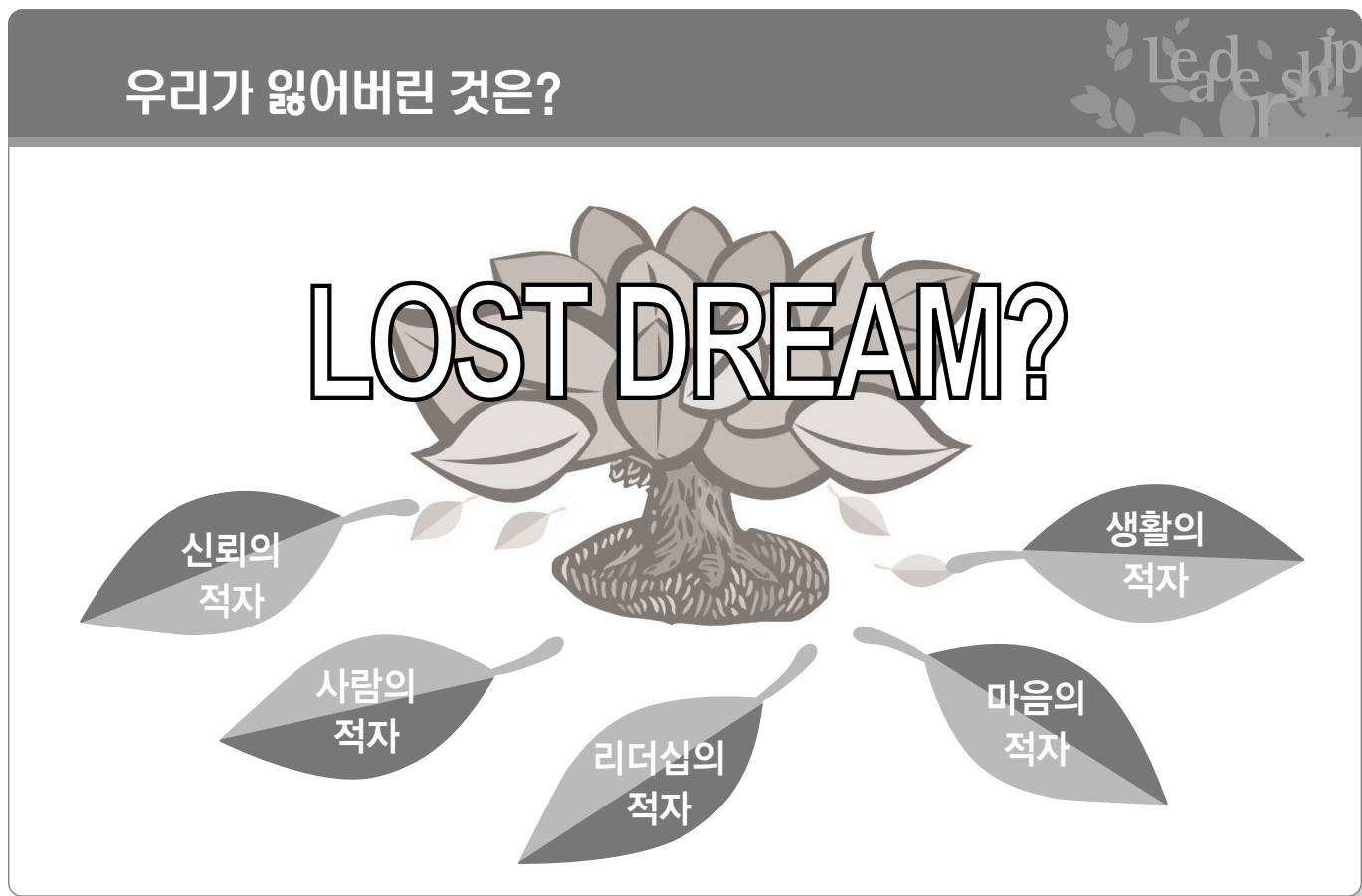
## 정치 경쟁력의 핵심은 “소프트 파워”

리 하웰 (Lee Howell)  
세계경제포럼 총괄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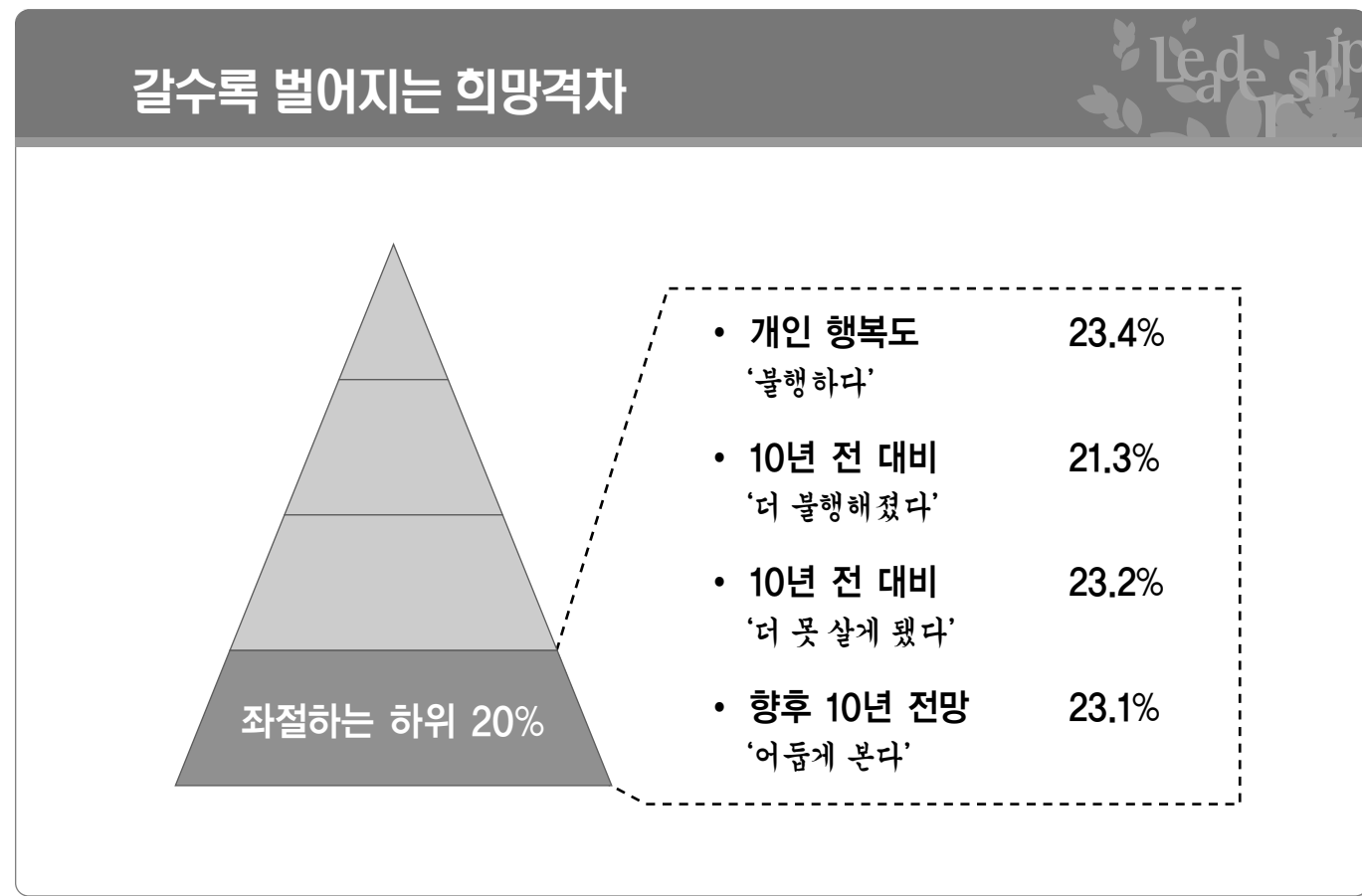
세계경제포럼의 리 하웰(Lee Howell) 디렉터는, 한국이 이 같은 리더십 적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에 바탕을 둔 리더십, 곧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영상

“소프트 파워의 뿌리는 존경과 신뢰, 감동에 있습니다. 마치 브랜드처럼 쌓아나가는 것이죠. 미래 리더의 역할은 사람들이 맡은 일을 자발적으로,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신뢰로 말입니다. 그것이 소프트 파워이고 리더십입니다.”



지금까지 선진 한국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적자. 생활의 적자, 사람의 적자, 마음의 적자, 신뢰의 적자, 그리고 리더십의 적자를 살펴 보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엽처럼 쌓이는 이 다섯 가지 적자가 모여 '꿈의 적자'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10년 전 보다 못 살게 됐다', '더 불행해졌다', '앞으로의 10년도 어둡다', 이런 응답이 일관되게 20% 이상 나옵니다. 통상 10%를 하위 층으로 보지만, 이제 미래에 대한 꿈 조차 포기하는 계층이 20% 이상으로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희망격차' 현상입니다. 장기 불황에 빠졌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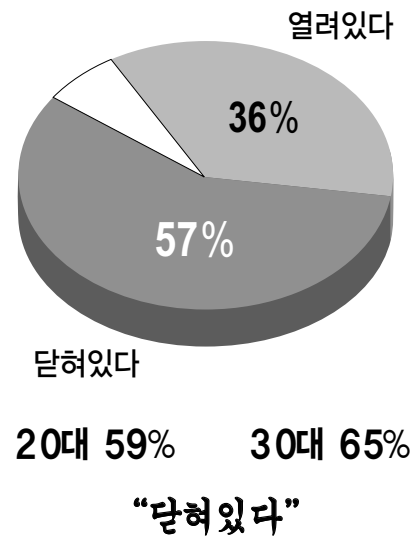
자료 | SBS - TNS 설문 조사 (2007.10)

## 중산층의 위기 의식, 잃어가는 꿈

### 위험 사회로 가는 한국

- 중산층 귀속감 28%로 하락
- 복지에 대한 관심 상승 (34.3%)
- 직업 선택 시 안정성 우선 (62.4%)

### 개인의 꿈 실현에 있어 한국 사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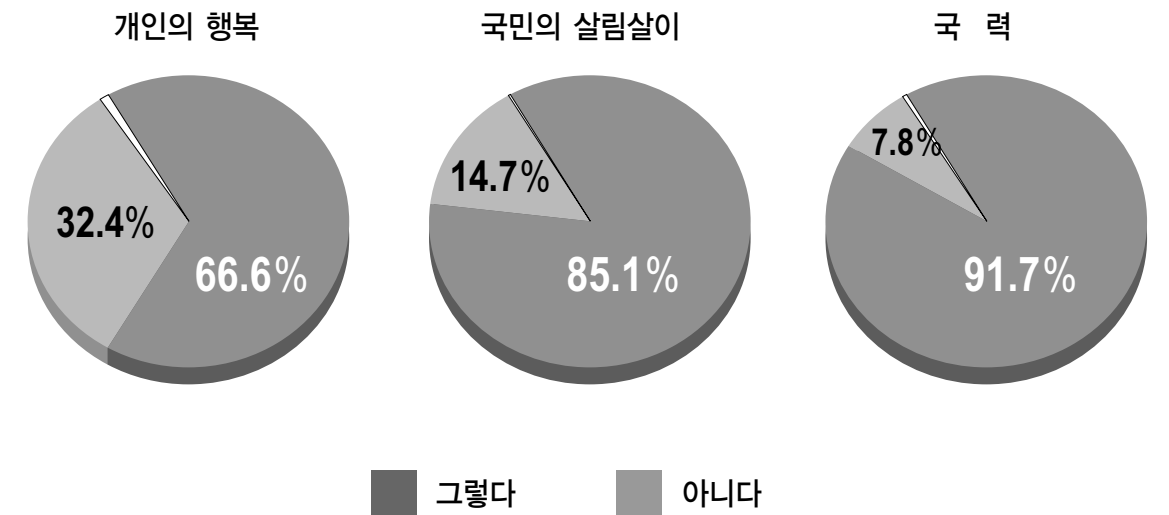


중산층의 위기 의식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중산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40%가 넘었지만, 이제는 2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국민의 60% 가까이는 꿈을 실현할 기회가 닫혀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꿈으로 벼락야 할 20대와 30대가 오히려 더 큰 절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료 1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한국 갤럽 조사 (2007.9)  
 자료 2 SBS - TNS 설문 조사 (2007.10)

## 적자를 해소하고 꿈을 주는 대통령

### 대통령의 역할 수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



꿈이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시대.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타개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국민의 절대 다수는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 국력이 신장될 수 있고 살림살이도, 개인의 행복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료 SBS - TNS 설문 조사 (2007.10)

## 지도자의 상상력이 꿈을 채운다



### 지도자의 상상력이 꿈을 채운다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Robert Root-Bernstein)  
 <생각의 탄생> 저자

적자를 해소하고 꿈을 주는 대통령.

어려운 일이지만, <생각의 탄생>을 저술한 루트번스타인(Root-Bernstein)은 전체를 보는 새로운 비전과 상상력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영상

“우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와 컨셉트들을 하나의 일에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단계의 창조성입니다.

이런 능력이 없으면 어떤 분야에서도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없습니다.

경제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없습니다.”

## 한국의 위상과 국가적 과제, 그리고 리더십

1. 우리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2.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서 두 원 / SBS 보도국 미래부장

안녕하십니까. 서 두 원입니다.

루트번스타인은 두바이 라는 나라가 사막의 마천루로 변신한 것은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국가 지도자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창조적인 리더십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꿈을 주는 리더십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 어떤 리더십이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드는가?

조엘 아버바크 (Joel Aberbach)  
UCLA 석좌교수, 미국정치연구소장

발표에 앞서 공공 정책과 대통령 리더십의 세계적 권위자 조엘 아버바크 교수를 모시고,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을 들어보겠습니다.

## 어떤 리더십이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드는가?



- 1 성공하는 대통령의 기본 조건
- 2 성공하는 대통령의 특별한 리더십
- 3 민주주의와 위대한 대통령

조엘 아버바크 (Joel Aberbach) / UCLA 석좌교수, 미국정치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민주 국가의 성공적인 대통령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효과적인 리더십의 일반 조건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민주 국가의 성공적인 리더를 위한 특별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1. 성공하는 대통령의 기본 조건

### 비전 제시

### 올바른 판단력

- 이슈 파악 및 우선 순위 결정
- 시간과 에너지 투입의 최적화
- 반대 의견의 원활한 수렴
- 현명한 인재 선택
- 올바른 결단력

### 용기

### 정직

우선 성공하는 대통령의 기본 조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의 실질적인 측면인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슈를 파악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능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능력, 반대 의견을 원활하게 수렴하는 능력, 인재를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단력입니다.

세 번째 큰 요소는 용기이며, 네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 2. 성공하는 대통령의 특별한 리더십

### 신뢰를 형성하는 설득의 힘을 갖춰라

### 현실적인 꿈을 심어줘라

### 능동적으로 합의하라

### 다양한 정보와 비판을 경청하라

###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을 존중하라

그렇다면 성공하는 대통령의 특별한 리더십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리더십 자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권력의 분배 및 국민의 동의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주 사회에서 우리는 리더로부터 비전을 기대하는데,

이 때의 비전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 설득의 힘입니다.

한 위대한 정치 학자는 ‘대통령의 힘이란 곧 설득의 힘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조직에 각기 다른 힘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이해 관계는 대통령의 그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리더로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원하도록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협상 능력을 강화 해주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 양보할 줄 아는 의지를 길러주게 됩니다.

다음 장에 계속



두 번째, 현실적인 꿈을 심어줄 수 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의 리더십이란 본질적으로 매우 난해하며,  
 동시에 사회는 복잡하고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냉 험한 현실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만들어야 실패한 리더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실패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항공모함 갑판 위에서 ‘이라크 임무 완수’를 선언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셋 째, 자신의 편에서 있는 잠재 세력을 잘 돌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민주 국가에서 어떠한 대통령도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으며, 모든 것을 다 얻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의 핵심은  
 분쟁을 합의로 이끌어내서 자신이 중요시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다양한 정보와 비판을 경청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늘 동의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내야 합니다.  
 이에 실패한 가장 좋은 예는,  
 이라크 침공에 대해 반대 의견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던 부시의 경우입니다.  
 결국 대통령 본인 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 있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존중입니다.  
 권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부패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대통령은 규범을 무시해도 된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거나 한참 뒤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타인의 권리를 깊이 존중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그의 정직성과 품위 있는 은퇴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닉슨 대통령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3. 민주주의와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이 위대한 국민을 만든다

**위대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대통령이다**

바로 이런 대통령이,  
 국민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창출해서  
 스스로 위대한 국민을 만든다.

다음 장으로 ▶

민주주의와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민주 국가에 있어서 성공하는 대통령이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되 동시에 현실을 일깨워주고, 기대치를 낮추어줄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반대 의견을 경청하며 때로는 반대 진영을 달랠 줄 알고,  
가능한 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수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대통령은, 한쪽 의견만 들으면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아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똑똑하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며,  
포용력과 집중력, 효과적인 협상 능력과 경청의 힘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익은 물론, 대통령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의 규범을 깊이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장의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도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여건과 제약 때문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언제나 국민의 자유를 지켰다는 자유 수호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진정 위대한 유산으로서, 이를 이어받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위대한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잘 들어주세요 ”

## 대통령 리더십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헬렌 토마스 (Helen Thomas)

백악관 57년 출입 기자 (최장 기간)



잘 들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단히 어려운 것 같군요.  
위대한 대통령과 위대한 국민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 우리도 유념 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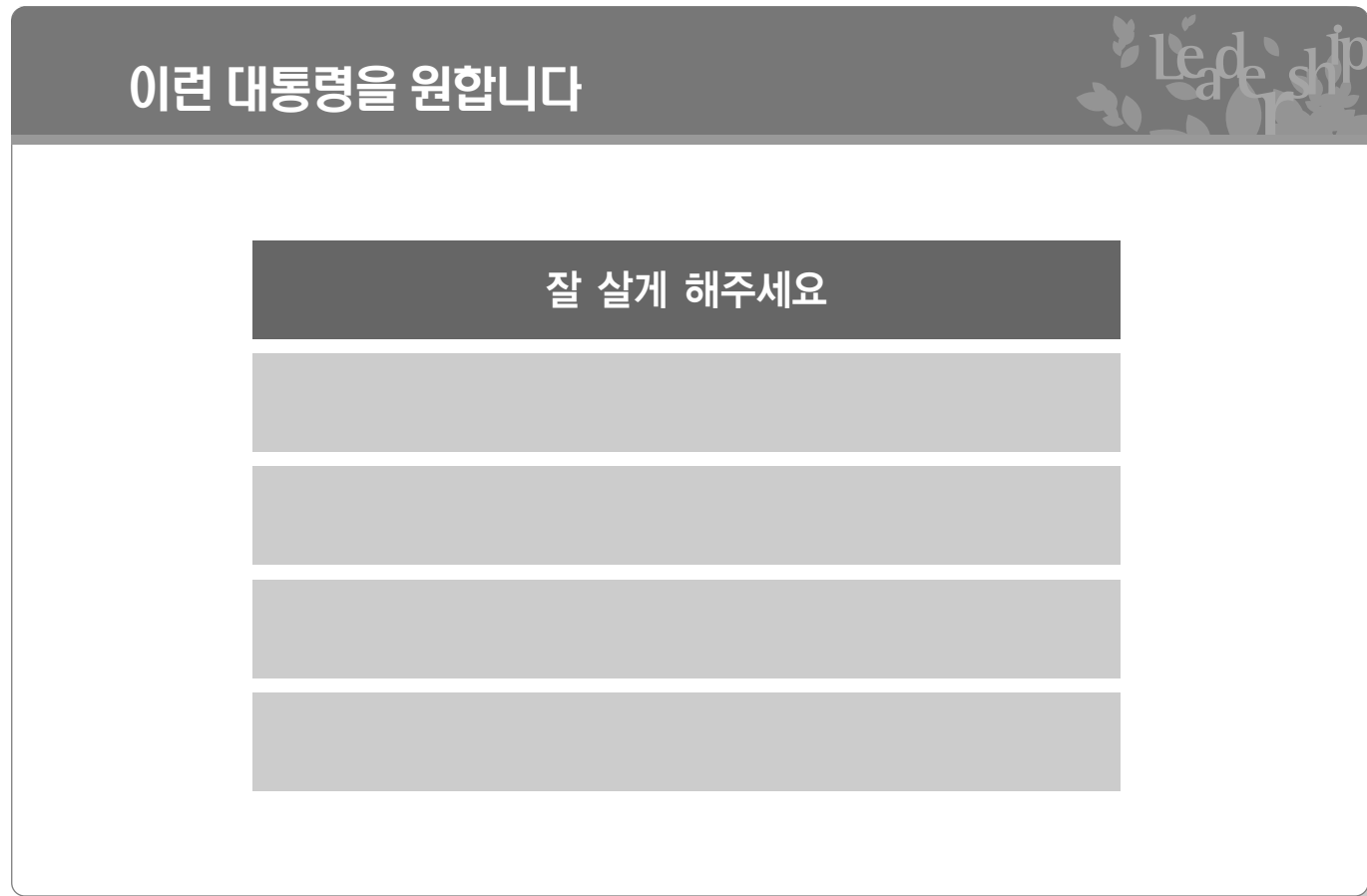
특히 아버바크 교수는,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잘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백악관을 57년이나 출입한 헬렌 토마스 기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SBS 워싱턴 특파원이 만나 보았습니다.

### 인터뷰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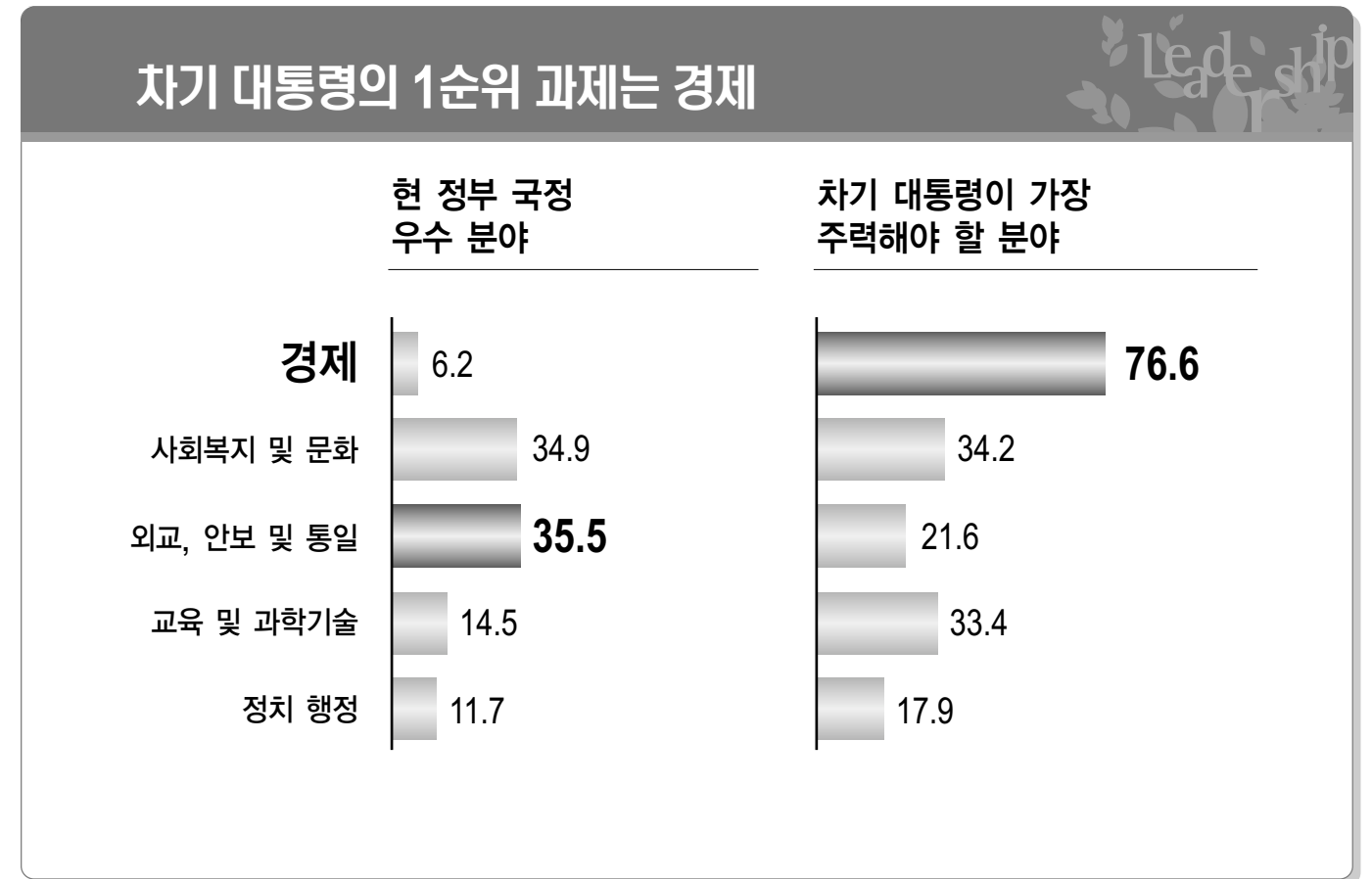
“대통령과 언론은 적대적인 사이가 되기 쉬워요.  
기자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질문 하는데,  
그들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에 ‘당신은 뭘데 질문을 하느냐’는 태도를 보이기 쉽지요.  
하지만 대통령은 진실을 말해줘야 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성실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거짓말은 절대 안돼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국민 모두가 다시는 믿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대통령의 기본은 바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조사와 국민 여론 수렴의 결과, 우리 국민이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SBS가 TNS에 의뢰한 설문 조사 결과, 현 정부는 외교 안보와 사회 복지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되었지만,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로 경제를 첫 손 꼽았습니다. 76.6% (1순위, 2순위 응답 합계)나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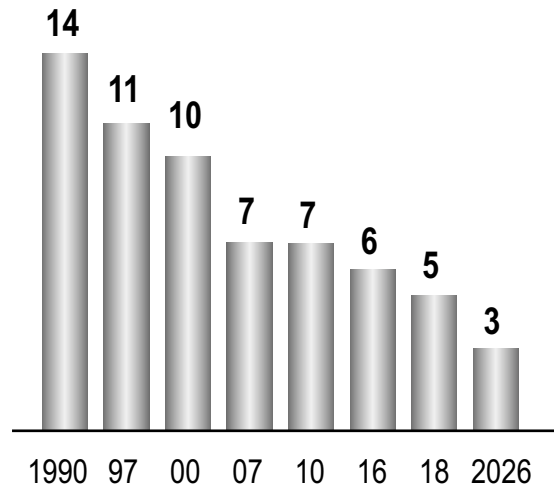
다른 분야를 압도하는 수치로, 그만큼 절박한 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성장이 제1 과제라는 뜻입니다.

자료 | SBS - TNS 설문 조사 (2007.10)

##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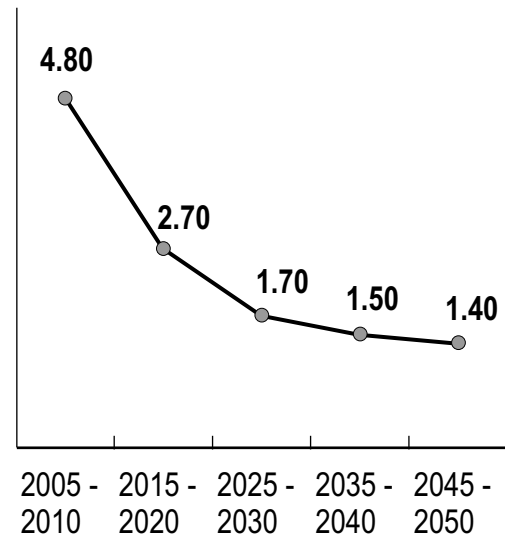
노인 1명 당 생산가능 인구 추이

(명)



실질 경제 성장률 예측

(%)



경제 성장이 시급한 것은 당장의 생계, 그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고령화 때문에 2020년이 되면 인구 감소를 겪게 됩니다.

생산 인구가 줄고, 부양 부담이 높아지면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할 길이 없습니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약 50년 후 실질 성장률이 1% 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2050년이면 전체 GDP의 11%를 의료, 건강 등 각종 연금에 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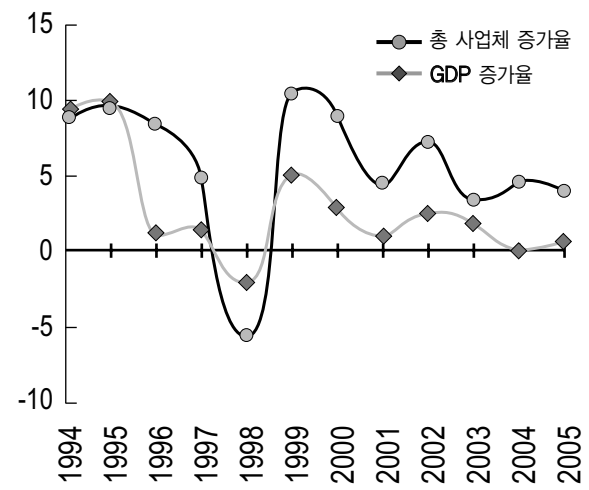
생산 인력의 감소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벌여놓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자료 1 장래 인구 추계 (통계청, 2006)

자료 2 Global Economics Paper No:134 (Goldmansach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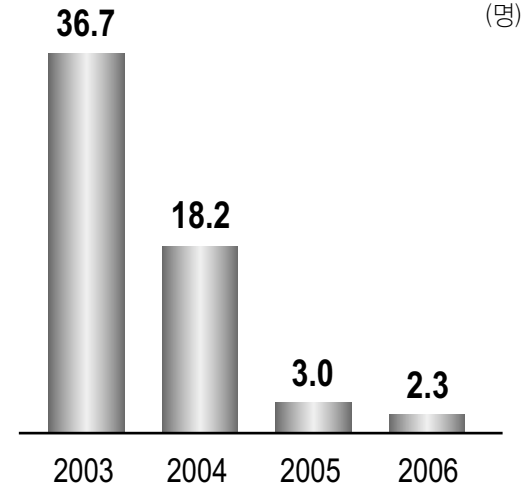
##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늘리는 성장

GDP 성장과 사업체 증가율 비교



유형 자산 10억 원 증가 시 고용 창출 인원

(명)



### 매년 기업 10만 양성

그러나 지표상의 성장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부터 늘려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GDP 성장률에 비해 기업체 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GDP 증가율은 총 사업체 증가율과 같은 형태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사업체를 늘리는 것이 곧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표에서 총 사업체 수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 수준을 감안할 때, 매년 벤처와 중소기업이 10만개 이상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5인 이상 제조 업체들이 투자를 10억 원 늘렸을 때 늘어나는 근로자 수는 고작 2.3명, 사상 최저를 기록 했습니다.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6명으로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 창출형 산업의 육성을 비롯해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이 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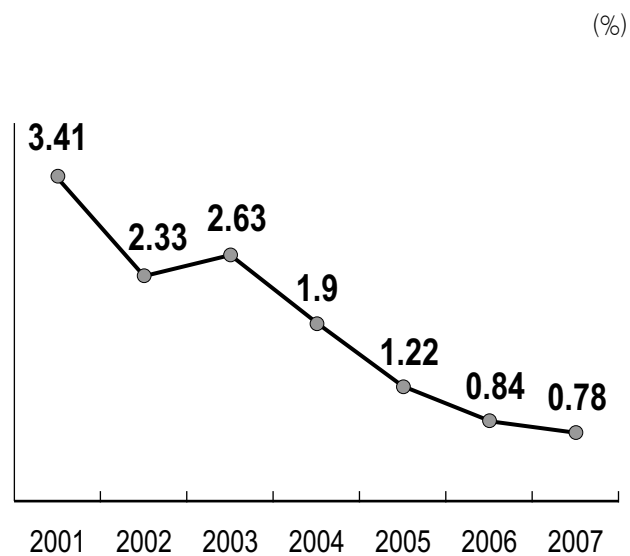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1 통계청 (2006)

자료 2 2006년 광업, 제조업 통계 조사 (통계청, 2007)

## 기업가 정신과 투자를 살리세요

###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추이



### 설비투자 증가율

나라 명	설비투자 증가율 (%)
미국	4.8
영국	4.5
독일	4.1
일본	8.8
싱가포르	10.8
<b>한국</b>	<b>3.2</b>

1996 - 2004

**방** 법은 무엇일까요?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투자부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부실채권 문제는 현저히 개선 되었지만, 공격적 투자는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돈을 빌리기보다는 오히려 회사에 쌓아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3년 간 한국에 대한 해외 투자는 6.3% 감소한 데 비해 한국의 해외 투자는 34.6%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돈과 사람, 정보와 지식이 몰려들도록 해야 합니다.

자 료 1 금융감독원 연례 브리핑, 2007  
 자 료 2 (OECD : UN, 2005) 한국은행 재인용

## 이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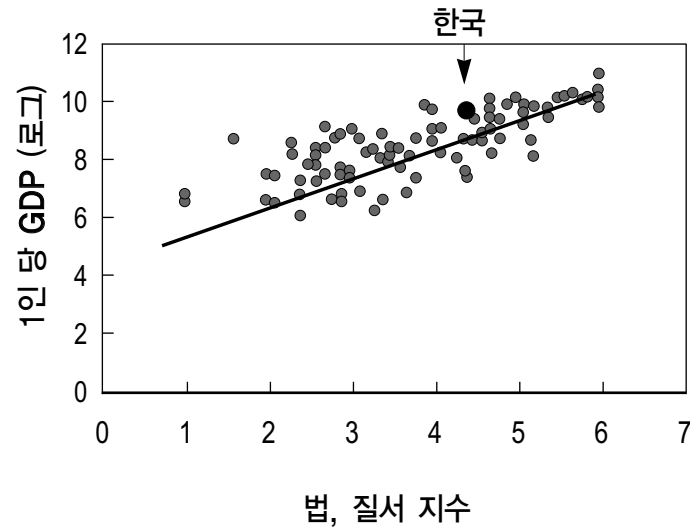
**변**화는 지도자 혼자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믿음을 주는 신뢰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 믿음을 주세요

법 - 질서 준수와 1인 당 GDP



법, 질서의 준수와 경제 성장 손실

법, 질서 지수	'99 - '00	'91 - '01	'91 - '02	'91 - '03
한국	4.4	4.3	4.3	4.3
OECD	5.5	5.5	5.5	5.4
성장 손실 (% P)	0.99	1.08	1.08	0.99

경제 성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이 OECD 국가들의 평균 만큼만 법과 질서를 지키는 수준이라면 (1991년부터 10년 간) 매년 1% 가량의 추가 경제 성장이 가능 했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이 형성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래 비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 입니다.

신뢰가 생기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 교사를 믿을 수 있고,

세금을 내도 정부를 믿을 수 있고,

노사도 서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선진국 국부 중 80%가 이 같은 무형 자산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실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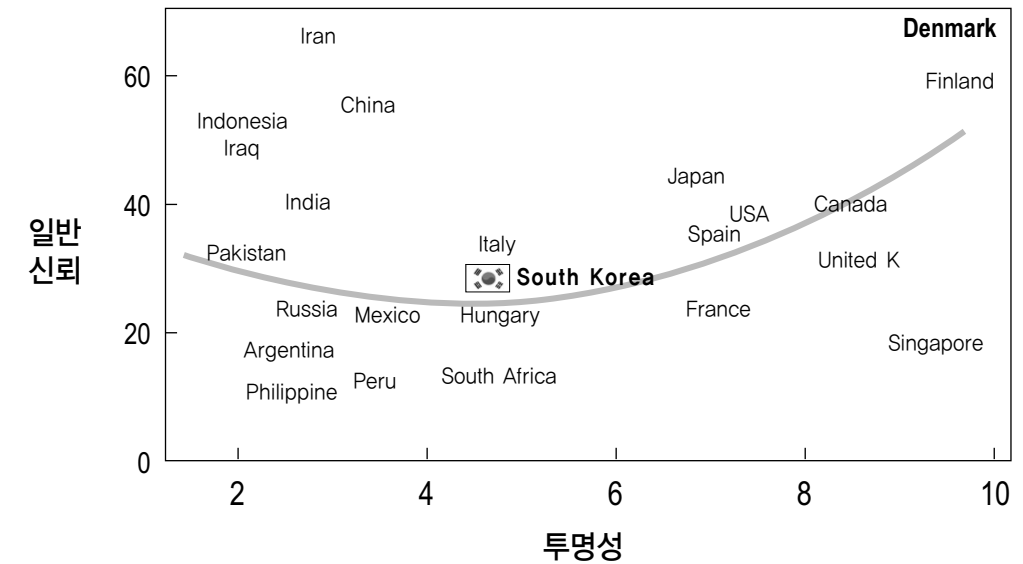
정치의 '政' 자는 올바른 아버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신뢰를 앞장서 실천하는 모범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 료 한국개발연구원 차문중 선임연구위원 (2007)

## 덴마크의 성공 비밀은 신뢰 사회!

투명성과 일반 신뢰의 상관 관계



신뢰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덴마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나듯 한국은 일반 신뢰와 투명성, 모두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1인 당 소득 5만 달러가 넘는 동시에 세계 행복 지수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덴마크의 성공은, 바로 신뢰 사회의 구축에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지 SBS 보도국 미래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 료 World Value Survey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분석



1인 당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덴마크는 국가 경쟁력 세계 3위, 국민 행복도 세계 1위이다.  
 평균 40%의 소득세를 내면서 행복하다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세계 2위라는 사실과 관계 있지 않을까?

총선을 열흘 앞두고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인,  
 전직 외무부 장관과 현직 교육부 장관이 함께 찾아간 유세장은 코펜하겐의 한 고등학교.  
 해외 파병 문제부터 경제 문제, 기후 변화, 외국인 난민 문제까지 목청을 높이는 라이벌 연사들.  
 성인 대상 유세는 업무 시간을 피해 야간에 이루어지고, 낮에는 이렇게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유세한다.

다음 장에 계속

인터뷰

모겐 리키토프 / 전 외무부장관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학교 유세는 미래 유권자를 지지자로 만들려는 목적보다  
 청소년에게 사회 문제, 국제 문제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덴마크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거의 다 경호원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인터뷰

뉴트 / 코펜하겐 시민  
 “정치인은 높은 사람,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과 같죠.  
 그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웃입니다.”

아홉 개 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미미해서, 항상 서너 개 정당이 연정을 하다 보니  
 강경 대립이나 당파 싸움은 찾아볼 수 없다.

인터뷰

바텔 헤더 / 교육부장관  
 “선거에서는 경쟁해도 정당끼리 협력이 아주 잘 됩니다.  
 선거가 끝나면 정당간 정책 조율에 들어갑니다. 의견은 달라도 서로 존경하죠.”

거의 모든 이슈의 논의 과정이 공개되어서, 결론이 날 때쯤이면 온 국민이 속속들이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진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감시와 평가는 서릿발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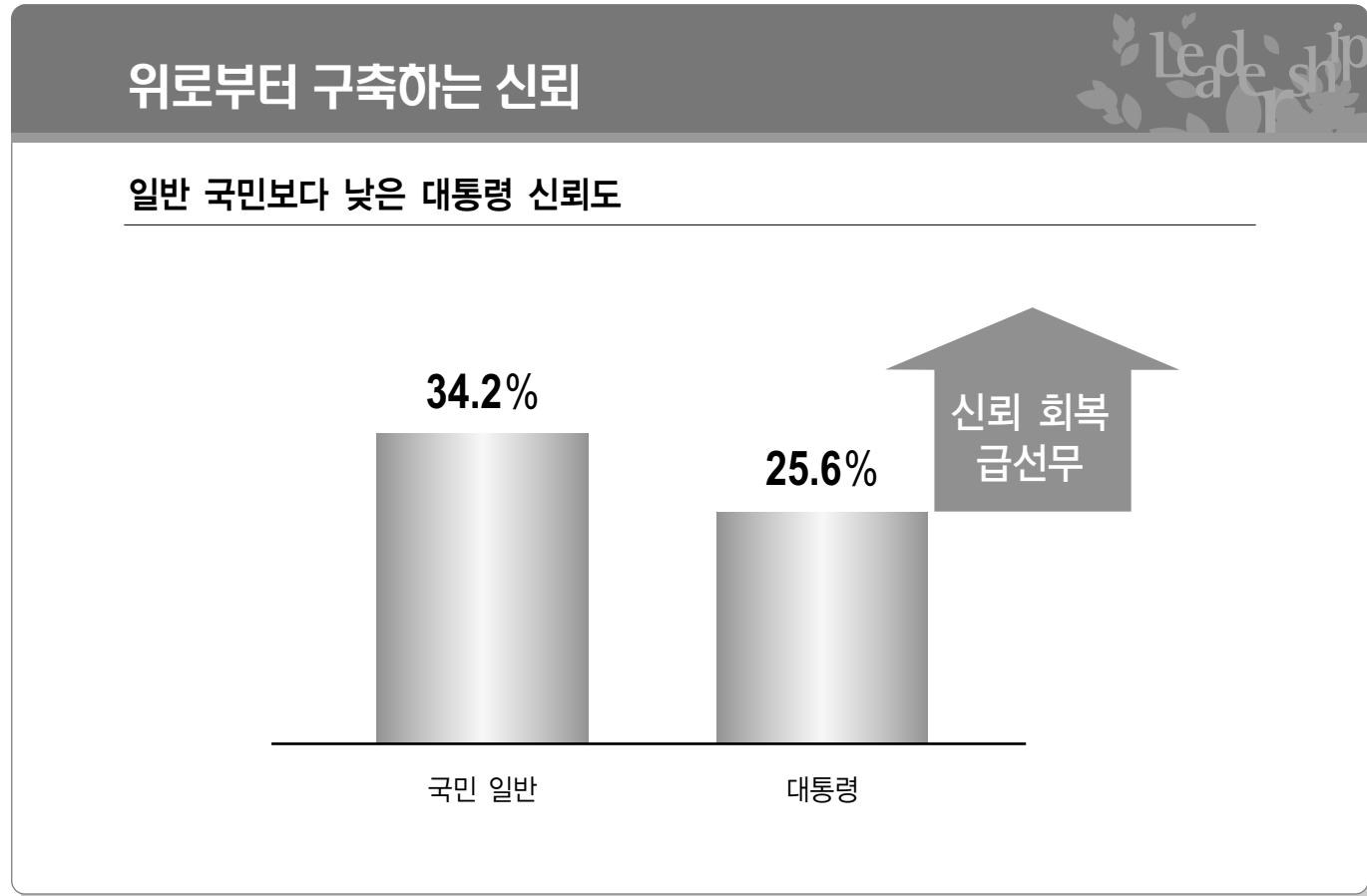
세계 최고의 장난감 회사 레고의 회장이 덴마크 정치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들어보자.

인터뷰

매스 올리슨 / 레고 회장  
 “기업인이 봐도 덴마크 정치는 정말 투명합니다.  
 뒷거래는 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선거 투표율 90% .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은 있어도 신뢰하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는 덴마크 사람들.  
 행복한 강 소국의 밑바탕에는 신뢰의 정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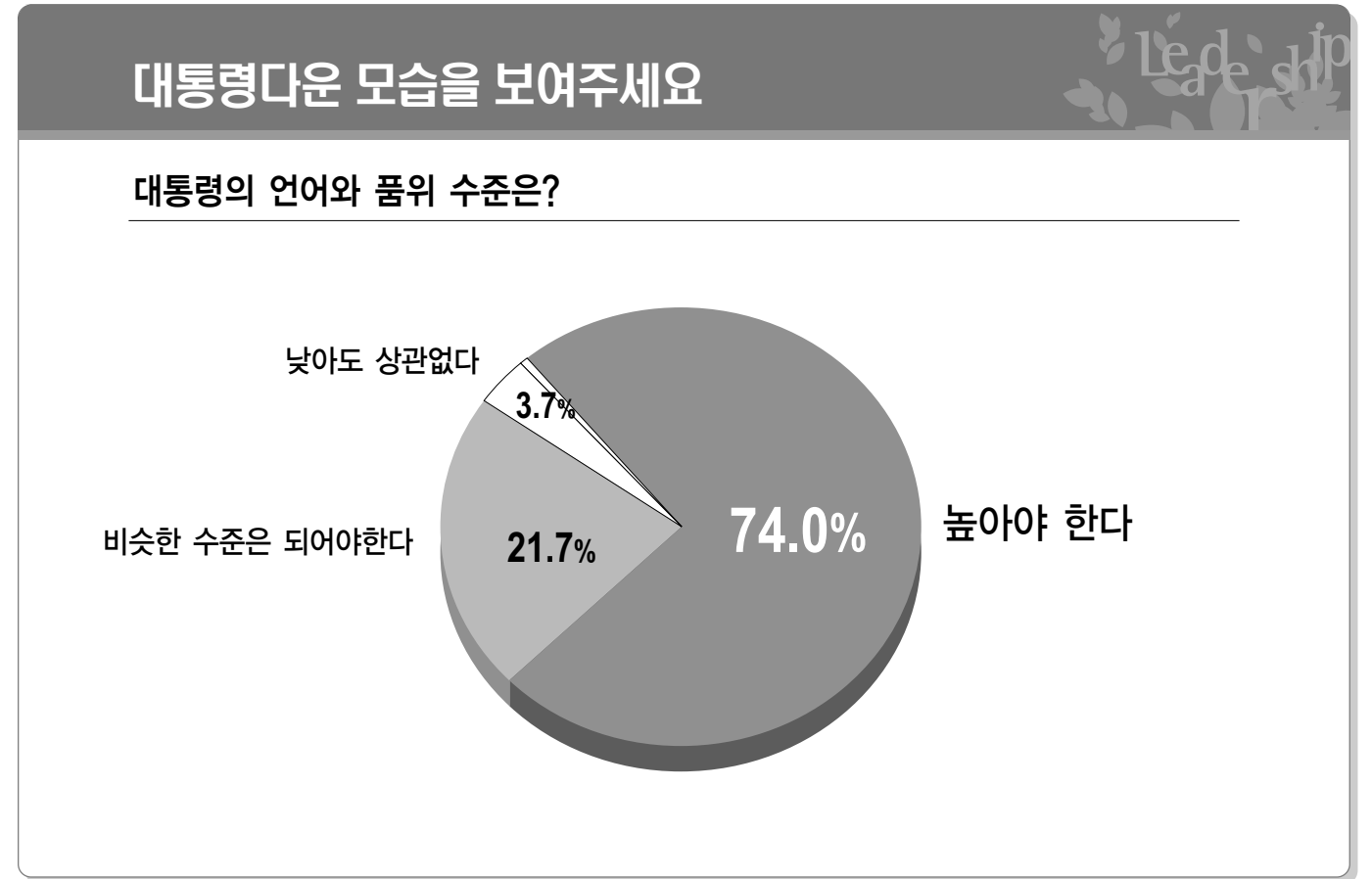


덴마크가 신뢰 강국이 된 것은,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지도층이 앞장선 결과입니다.

한국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이 높은 곳일수록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정 반대입니다.

한국은 남을 믿을 수 있느냐는 국민 일반의 신뢰도가 3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그보다도 더 낮은 실정입니다. 그 격차를 역전시켜 윗물부터 맑아서 아랫물이 맑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 | SBS - TNS 설문 조사 (2007.10)



존경할 만 해야 신뢰를 받습니다. 한국인의 74%는 대통령의 언어와 품위가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민은 본받고 싶은 대통령을 원합니다.

자료 | SBS - TNS 설문 조사 (2007.10)



## 이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세요**

국민의 요구 세 번째는,  
마음이 넓고 따뜻한 대통령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세요

###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국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21.1%
안보 위협 없고 치안 걱정 적은 나라	7.8%
<b>빈부 격차 작고 사회 복지 잘된 나라</b>	<b>49.1%</b>
개성이 존중되는 창의적인 나라	4.8%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나라	16.5%



**세종의 행복 정치는  
공휼(矜恤)과 애민(愛民)**

국민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성장을 꼽았지만,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은 빈부 격차가 작은 복지 국가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세의 사회보장 사용 비율이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임을 생각하면, 추위를 타는 국민의 심사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 중 택일하라는 시대 착오적 논리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교육과 의료, 연금, 실업 대비에 이르기까지 사회 안전 망 확충 등을 통해 따뜻한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국민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 아픔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600년 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즉위하자마자 7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세종은 광화문에 커다란 가마솥을 내걸고 궁중에 있는 쌀을 내다가 백성들에게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궁궐에서 나와 초가집을 짓고 2년 반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세종의 행복 정치는 공휼과 애민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은 그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자 료 SBS - TNS 설문 조사 (2007.10)

## 이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세요

사람이 모이도록 하세요

네 번째로, 대통령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아껴야 합니다. 계층이나 파벌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 사람이 모이도록 하세요

### 도산 선생의 4식론 (四植論)

-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하고
- 사람들 사이에 신용을 심어야 하고
- 민족의 자본을 심어야 하고
- 겨레를 이끌 인재를 심어야 한다

### 동방학습지국의 비전

- 교육 허브
- 인재에게 열린 이민 시스템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가 망했을 때 산에 나무를 심고, 사람들 사이에 신용을 심고, 나라에 자본을 심고, 겨레를 이끌 인재를 심자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육 엑소더스 행렬을 멈추고, 고급 두뇌 유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학습하기 좋고, 인재들이 가장 사랑받는 동방학습지국, 인재 강국으로 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해주기를 원합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가정까지 해체하며 외국에 나가는 행렬, 다음 정부에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규제를 풀고, 이민 제도를 개혁해서라도 인재를 끌어들이어야 합니다.

청와대 인사 수석실은 공직자를 뽑는 데서 벗어나 'War for Talent' 세계의 인재 전쟁에 대처하는 국가 인재 확보실로 거듭나야 합니다. 공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 이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세요

사람이 모이도록 하세요

미래로 이끄는 리더가 되어주세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라를 미래로 이끄는 대통령입니다.

##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만 보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가자미는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바닥에 붙어 다니기만 합니다. 안목이 제한되니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주하는 리더가 되어서도 곤란합니다. 타조는 한 때 잘 날아 다녔었는데, 먹이가 풍부하고 맹수가 사라지자 아예 날 줄 모르는 새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솔개입니다.

하늘 높이 나는 솔개는, 40년쯤 산 뒤에 부리와 발톱, 날개를 스스로 뽑아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다시 태어나 70년을 넘게 산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리더가 필요하겠습니까?

### 세계 경쟁의 화두는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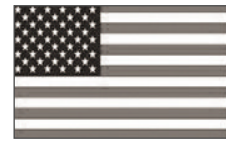
	영국 미래전략기구 (PMSU)
	미국 CIA 산하 정보위원회 (NIC)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덴마크 코펜하겐 미래학연구소
	핀란드 미래상임위원회

세계 경쟁의 화두는 단연 미래입니다.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 역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레이스에 이미 뛰어 들었습니다.

- 영국의 미래전략기구 (PMSU-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 미국 CIA 산하 정보위원회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 일본의 총합연구개발기구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 캐나다의 정책전략청

## 씽크 탱크가 이끄는 미국의 힘



헤리티지 재단



브루킹스 연구소



랜드 연구소

다음 장으로 ▶

미국에는 2천 개가 넘는 씽크 탱크(Think Tank)가 있습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이 20세기 초반 글로벌 파워,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것을 준비하는 두뇌 집단이었고, 랜드 연구소는 2차 대전 이후의 질서 재편을, 헤리티지는 공산주의에 맞서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두뇌 집단이 미국의 정책 결정에 깊숙하게 투입되어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미국의 탱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씽크 탱크라고 이야기한 것 처럼, 미국이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이끄는 것은 생각의 탱크를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힘이라는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의 핵심입니다.

**상세설명** 미국의 경우 씽크 탱크는

- 연구소 (Research Institute = 브루킹스 연구소 1916년,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1910년)
- 정부용역 씽크 탱크 (Government Contractors = RAND 1948년, 도시연구소 1968년)
- 옹호형 씽크 탱크 (Advocacy = 헤리티지 재단 1973년)
- 명사형 씽크 탱크 (Legacy-based = 카터 센터 1984년)의 유형으로 나뉘고 있음.

최근에는 전문화, 소형화, 지역화 하는 추세에 있으며,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GI)와 같은 대형 컨설팅 펌의 부설 씽크 탱크의 활약도 흥미할 대목임. 100여 년의 씽크 탱크 역사에서 주목할 것은, 시대의 요청과 상황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 카네기나 브루킹스의 경우 미국이 글로벌 파워로 진입하는 준비를 주로 담당한 씽크 탱크였다면, 랜드는 2차 대전의 종결과 냉전 구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음. 헤리티지는 전술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사상과 가치의 옹호 필요성을 안고 출범. 이념적 스펙트럼으로는 진보(브루킹스), 보수(헤리티지), 극보수(AEI)로 구분되기도 함.



## 미래 준비가 꽃피운 핀란드와 덴마크

핀란드  
미래상임위원회



덴마크  
미래학문제연구소



유럽 변방 인구 500만의 핀란드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도 미래 준비 덕분입니다.

핀란드는 1990년대 초,

최대 교역 국가였던 구 소련이 무너지자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빠지며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때, 여 야가 합심해 국회에 설치한 것이 미래상임위원회 입니다.

15년 장기 프로그램으로 국가의 재도약을 설계한 미래상임위가 발견해 낸 것이,

목재 회사 노키아(Nokia)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노키아가 이제는 세계 최대의 IT 기업이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비결 역시 미래 준비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미래 연구 집단의 하나인 미래학문제연구소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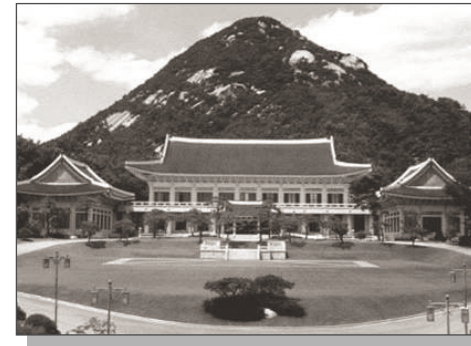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국가의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해 왔습니다.

오디오 기업 '뱅 & 올루슨' (Bang & Olufsen),

풍력 발전 에너지 기업 '베스타스' (Vestas),

장난감 회사 '레고' (Lego) 처럼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덴마크를 대표합니다.

## 21세기의 집현전을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한국에는 미래를 책임지고 디자인하는 조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미비합니다. 경제기획원이 해체된 이후, 정부에는 미래 비전을 담당하는 공적 기구가 사라졌습니다.

현 정부의 장관 임기는 평균 12.8개월 입니다.

특히 청와대의 경우 정책 실장의 자리를 신설했지만, 이 또한 5명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국회의 경우 '미래전략특위' 라는 기구가 생겼지만

매달 한두 차례 씩 전체 회의 또는 공청회를 열고 관련 기업을 시찰하는 수준일 뿐,

미래를 설계하는 힘 있는 수준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의 연구소는 많지만 소속 부처의 입장을 대표할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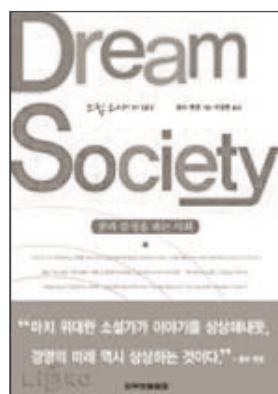
객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투입과 산출에 기여하는 씽크 탱크는 찾기 어렵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우리에게도 세계적 수준의 씽크 탱크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위해 설치한 집현전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21세기의 집현전이 필요합니다.

### “상상력이 미래 리더십의 핵심”



**롤프 얀센 (Rolf Jensen)**  
前 코펜하겐 미래학연구소 소장

이제 세상에는 감성과 가치에 바탕을 둔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 꿈과 상상력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를 저술한 롤프 얀센 덴마크 미래학연구소장은 이 시대 대통령은 CEO가 아닌, CIO, Chief Imagination Officer, 꿈과 상상력을 경영하는 책임자가 되어 국민을 미래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영상

“이제 지식 경제의 한 복판에 감성에 기반을 둔 경제(emotion-based economy), 꿈의 사회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자는 물론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도 최고 상상력 경영자(CIO)로 거듭나야 합니다.”

### 뉴 프론티어에 도전하는 세계



**존 F. 케네디**  
제35대 미국 대통령



**고 산**  
한국 최초 우주인

다음 장으로

상상력의 리더십이 찬연하게 빛을 발하는 분야가 우주입니다.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달 탐험에 대한 도전 의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존 F. 케네디 연설 영상**

“우리는 지금의 1960년대가 가기 전에 달에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우리의 열정과 기술을 최대한 끌어올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도전을 미루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또한 승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려 들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내년 4월이면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합니다.  
러시아에서 고된 훈련중인 고산 씨가, 이 자리에 계신 대통령 후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고산 메시지 영상**

“러시아에서 우주인 훈련을 받으면서 한국이 정말 저력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 후 잿더미에서 시작하여 자국민을 우주로 보내려는 정도로 발전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고산 씨의 꿈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생업이 잘되기 바라는 꿈, 기업을 세워 성공하는 꿈,  
가족이 화목하고 노후가 편안하길 바라는 꿈,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꿈.  
모두가 소중한 꿈입니다.

수 없이 많은 꿈들을 북돋아 주고 이끌어 주는 대통령을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꿈은 물론 개개인이 꾸는 것이지만,  
그 꿈이 실현될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비전은 국민의 꿈과 만나는 것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정한다 (The attitude determines the altitude)’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태도이며  
태도에 따라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솔개와 같은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을 미래로 이끄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높고 넓은 관점을 가지고 국민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미래 한국의 비전은 대통령의 꿈과 국민의 꿈이 만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07 IMD 세계 경쟁력 보고서 분석

국 가	정치 경쟁력 종합 점수 (10점 만점)	A	B	C	D	E	F	G	H	I
싱가포르	7.95	1	1	1	2	10	4	11	10	1
덴마크	6.30	2	4	2	1	5	1	1	5	2
노르웨이	6.06	34	20	22	12	16	15	12	13	5
독일	6.04	29	33	26	22	7	18	9	12	16
미국	5.70	27	21	19	20	24	19	19	18	40
영국	5.56	32	28	16	27	33	14	18	17	24
일본	5.50	28	29	18	32	23	22	17	21	26
<b>한국</b>	<b>4.39</b>	<b>47</b>	<b>44</b>	<b>37</b>	<b>34</b>	<b>29</b>	<b>29</b>	<b>30</b>	<b>35</b>	<b>25</b>
멕시코	3.79	20	42	52	36	37	40	51	40	37
브라질	3.50	38	52	47	45	47	50	44	28	31

- 별첨 -

- A. 정부 정책 방향의 일관성
- B. 법, 제도 체계가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
- C.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
- D. 정부 정책의 투명성
- E. 공공 정책의 정치적 독립성
- F. 뇌물 및 부패 정도
- G. 사회 정의의 실현 정도
- H. 정치적 불안정성
- I. 사회적 통합 정도

### 2006 - 2007 WEF 세계 경쟁력 보고서 분석

국 가	정치 경쟁력 종합 점수 (7점 만점)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사법부 독립	정부 정책 결정의 중립성	정부 지출의 적합성	입법 체계의 효율성	부패 비용
덴마크	6.1	2	7	2	7	3	5
노르웨이	5.8	7	5	7	12	8	6
싱가포르	5.2	1	29	5	1	1	7
독일	5.2	16	1	6	25	12	8
영국	5.1	20	8	14	17	2	11
일본	4.4	25	22	17	74	23	22
미국	4.2	24	36	39	27	21	32
태국	3.9	48	45	41	16	40	46
중국	3.3	45	78	60	53	43	87
파키스탄	3.3	55	80	52	42	60	77
<b>한국</b>	<b>3.3</b>	<b>67</b>	<b>51</b>	<b>46</b>	<b>73</b>	<b>67</b>	<b>70</b>

- 별첨 -

### 2007 - 2008 WEF 세계 경쟁력 보고서 분석

국 가	정치 경쟁력 순위 평균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사법부 독립	정부 정책 결정의 중립성	정부 지출의 적합성	입법 체계의 효율성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
덴마크	2.5	2	3	2	5	1	2
싱가포르	9.33	1	19	5	1	10	1
노르웨이	6.16	6	9	7	15	8	11
독일	10.83	19	1	8	26	2	9
영국	22.16	23	12	20	40	14	24
<b>한국</b>	<b>26.00</b>	<b>22</b>	<b>35</b>	<b>15</b>	<b>22</b>	<b>28</b>	<b>34</b>
일본	32.50	33	21	18	94	15	14
미국	38.33	34	37	45	53	30	31
태국	41	60	43	42	18	44	39
중국	67.5	45	82	71	48	71	88

- 별첨 -

자문위원 및 도움주신 분들 (가나다 순)

국 내

김 민 영	맥킨지 파트너
김 태 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박 상 용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좌담 패널)
박 찬 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좌담 패널)
이 재 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베이 자문 및 좌담 패널)
조 병 구	KDI 선임연구원
조 영 탁	(주)휴넷 대표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
최 평 길	전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최 항 섭	KISDI 연구위원
하 영 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함 성 득	고려대 교수, 대통령학 연구소장

해 외

특별 연사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 아시아·태평양 회장
	조엘 아버바크	미국 UCLA 석좌교수, 미국정치연구소장

김 종 채	노르웨이 에너지기술연구소 (IFE) 연구원
게이레 룬데스타	노벨평화상 선정위원회 사무총장 (노르웨이)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게이오대 교수, 전 경제재정상
디드릭 톤셋	주한 노르웨이 대사
라스 빌레	덴마크대 정치학과장
랄프 코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퍼시픽포럼 대표
로버트 루트벤스타인	'생각의 탄생' 저자, 미시건주립대 생리학과 교수
롤프 안센	'드림 소사이어티' 저자, 전 코펜하겐 미래학연구소장
리 하웰	세계경제포럼 디렉터
마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
모겐 리키토프	덴마크 국회의원, 전 외무부장관, 전 사회민주당 총재
매스 올리슨	레고 회장
바텔 헤더	덴마크 교육부장관
버트 로크만	미국 퍼듀대 정치학과 교수
빅터 워스톨 주니어	노르웨이 에너지기술연구소 (IFE) 인사담당
벤트 벤슨	덴마크 부총리 겸 경제-기업부장관, 보수당 총재
오이스타인 올라버그	노르웨이 에너지기술연구소 (IFE) 연구원
올레 단볼트 미아스	노벨평화상 선정위원회 위원장 (노르웨이)
우 칭	중국 외국어대 교수, 북경시 해정구 인민대표대회 대표
잉 게 뤼닝	노르웨이 하원의장, 북유럽협의회 노르웨이 대표
에릭 슈라임	노르웨이 개발부장관 겸 환경부장관
헬 터닝 스미스	덴마크 사회민주당 총재
헬 게 베엠	노르웨이 오슬로대 정치학과 교수
헬렌 토마스	미국 허스트 뉴스서비스 기자 (백악관 최장기 출입기자)

SBS 프로젝트 팀

서 두 원	미래부장
김 상 협	미래부 데스크
이 현 식	차장
이 정 애	기자
김 정 기	기자
조 미 호	PD
이 은 영	AD
손 승 희	작가
박 준 석	연구원
홍 나 리	연구원
성 주 영	행정
하 지 희	웹 디자이너
윤 현 진	아나운서

프로젝트 지원

고 창 균	맥킨지 홍보팀장
백 지 원	맥킨지 비주얼 담당
울릭 메드 한스	주한 덴마크 대사관 공보담당
준 헤틀란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공보담당

설문조사

TNS 코리아 - 이상일 본부장, 고태영 과장

PCO

인세션

협 찬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도미니크 바튼 (Dominique Barton)**

**맥킨지 (Mckinsey & Company) 아시아 태평양 회장**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현재 상황, 즉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에서

한국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린 후,

한국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10년 전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표면과는 달리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7년 이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4%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나,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후퇴하는 성장 속도입니다.

중국과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서 크게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으로의 투자가 크게 격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아주 부진합니다.

일자리의 70% 가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반드시 이 부분에서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의 도전도 생각해 야 합니다.

네 번째,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모두 알고 계실 것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사문제가 아직까지 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반면, 전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우리가 강한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간 중국 베이징에서 3만 9천 개가 넘는 IT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Petro China' 사의 경우 얼마 전 세계 최초로,  
시가 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354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던 기업이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 뿐 아니라 기후 변화나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변화의 속도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을 살펴보다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그만큼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시장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을 합쳐 8억 명의 인구가 8년 이내에  
중산층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시장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국의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합니다.  
세계의 일류 기업 수준에 달하는 기업의 수가  
현재의 세 배 수준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우리의 이웃 국가들은 모두  
국가 지도자 차원에서 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총리가 나서서 '515 프로그램' 을 선창했습니다.  
2015년까지 세계 5위 기업을 다섯 개 이상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해야 합니다.  
한국이 직접 나서서 해외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지적인 논쟁들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기후 변화라든가 에너지 문제들을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에게만 맡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난 10년 이상 한국 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교육과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 부문의 경우,

우리는 OECD 가입국 평균보다 4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100위 대학 안에 한국의 대학은 단 2개뿐이며,

일본은 11개, 중국은 6개의 대학들이 200위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03년에는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를 반드시 따라잡아야 할 것입니다.

연금이나 의료 체계 개혁 또한 이루어야 합니다.

생산성 부문의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의료 체계의 개혁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통해

OECD 회원국의 생산성에 버금가는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한국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5년 동안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세계에서 지도자 반열에 들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엘 아버바크 (Joel Aberbach)  
UCLA 석좌교수, 미정치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민주국가의 성공적인 대통령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효과적인 리더십의 일반 조건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민주 국가의 성공적인 리더를 위한  
특별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공하는 대통령의 기본 조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의 실질적인 측면인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슈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능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능력,  
반대 의견을 원활하게 수렴하는 능력, 인재를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단력입니다.

세 번째 큰 요소는 용기이며, 네 번째는 정직성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대통령의 특별한 리더십 조건은 무엇일까요?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리더십 자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권력의 분배 및 국민의 동의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주 사회에서 우리는 리더로부터 비전을 기대하는데,  
이때의 비전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 설득의 힘입니다.

한 위대한 정치학자는

‘대통령의 힘이란 곧 설득의 힘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조직에 각기 다른 힘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이해관계는 대통령의 그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리더로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원하도록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협상 능력을 강화해주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 양보할 줄 아는 의지를 길러주게 됩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꿈을 심어줄 수 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의 리더십이란 본질적으로 매우 난해하며,  
동시에 사회는 복잡하고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냉 험한 현실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만들어야  
실패한 리더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실패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항공모함 갑판 위에서 '이라크 임무 완수'를 선언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셋 째, 자신의 편에 서 있는 잠재 세력을 잘 돌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민주 국가에서 어떠한 대통령도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으며,  
모든 것을 다 얻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의 핵심은,  
분쟁을 합의로 이끌어내서 자신이 중요시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를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다양한 정보와 비판을 경청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늘 동의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내야 합니다.  
이에 실패한 가장 좋은 예는,  
이라크 침공에 대해 반대 의견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던 부시의 경우입니다.  
결국 대통령 본인 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 있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존중입니다.  
권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부패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대통령은 규범을 무시해도 된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거나 한참 뒤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타인의 권리를 깊이 존중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그의 정직성과 품위 있는 은퇴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닉슨 대통령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성공하는 대통령이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되 동시에 현실을 일깨워주고,

기대치를 낮추어줄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반대 의견을 경청하며 때로는 반대 진영을 달랠 줄 알고,

가능한 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수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대통령은, 한쪽 의견만 들으면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아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똑똑하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며,

포용력과 집중력, 효과적인 협상 능력과 경청의 힘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익은 물론, 대통령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의 규범을 깊이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장의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도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여건과 제약 때문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언제나 국민의 자유를 지켰다는 자유 수호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진정 위대한 유산으로서,

이를 이어받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위대한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